2014-CR-10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4-09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연구
: 광진구 일대를 중심으로

김지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014-CR-10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연구

: 광진구 일대를 중심으로

연구진

연구책임	김지혜	탐구스튜디오 대표
연구원	이영선	공간실험실_선
	고영기	사무소모호

이 보고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서울연구원 및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 중곡동과 구의동을 비롯한 단독주택지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개발된 광장동에 비해 다양한 도시적 인프라가 부족하며 광진구 내에 삶의 질적 수준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놀이터 등의 어린이 공공시설은 주거지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시설이지만 서울시 대부분의 단독주택지와 마찬가지로 시설수가 매우 부족하다.
- 단독주택지 내에서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시설 공급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마을단위(근린범위)에서 필요한 시설과 기능, 규모 등 범주와 기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단독주택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마을내 공동체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단위 어린이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배치기준 및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산층 주거지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광장동과 단독주택지로 개발된 중곡동 및 구의2동을 대상으로 한다.
- 먼저 하루의 대부분을 마을 안에서 보내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분석하며 어린이 공공공간을 주 분석 대상범위로 한다. 또한 어린이 간 연령대별 활동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 기준을 설정해보고, 기존 시설

점검, 대상지 내 어린이 공공공간의 입지 및 현황분석을 통해 기존시설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 아울러 통계를 비롯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며 이를 시각적 매핑을 통하여 공공공간의 배치 및 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한다.
- 이 연구는 현황을 일반화시켜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대상지의 특수한 상황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구체적 시각적 결과물을 제작함으로써 향후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확충을 위한 계획, 마을공동체관련 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시 및 광진구 시설 목록이 상충되는 부분이나 확인되지 않은 시설 혹은 변동사항을 답사 및 현황조사를 통해 수정 기록하여 시각화하였으며 공동주택개발 및 도시 변화부분도 모두 지도에 반영하여 2014년 8월 기준으로 수정 제작하였다.

2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 이 연구에서의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은 근린생활권내에 위치하여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자 한다.
-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은 어린이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물리적 도시 환경의 기본 요소이다.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어린이 공공공간은 세대가 어우러지는 마을 단위 공동체의 공간적 중심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 광진구 내 어린이 공공공간 현황

- 광장동과 중곡동・구의2동은 공원 및 놀이터의 시설 및 면적이 매우 부족하다.
- 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실 외 영유아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 활동을 고려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이나 양육자들이 도보로 접근하기 어려워 접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주민센터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면적이 협소하고 영유아를 배려한 공간이 없으며 운영시간이 짧아 실제 영유아들과 양육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들과 기타 도시중심시설들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직선반경 100미터 이내에 공원 및 놀이터, 도서관이 위치해 있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4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과 도시공간구조 분석

- 공공공간은 입지와 접근성과 계획적 측면에서 공간적 근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와 같은 약자들이 물리적, 심리적 장애요인 없이 쉽게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공공공간들은 반드시 도로나 교통 혹은 다른 공공공간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며 각각의 공공공간이 관계망을 가지는 하나의 구조를 마을로 볼 수 있다.
- 공원 및 도서관 등 어린이 공공공간들을 도시내 주요시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이들과 연관되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 공공공간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동반 이용하며 다양한 세대가 활용 가능한 공간이므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복합적으로 배치하거나 인접 배치한다면 어린이

와 양육자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더 풍부한 도시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 어린이 공공공간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양육자, 마을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마을공동체는 아이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 공공공간은 단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충 및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어린이 공공공간은 지역이나 계층 등 차별없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주거지에서 도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하고 접근경로가 차량동선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시설계획은 연령별 어린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양육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어린이 공공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시구조 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어린이 공공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접근성 및 형평성, 보육 및 교육시설과 도시중심시설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시설을 공간적 운영적 측면으로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기존시설의 면적 및 시설을 영유아를 고려하여 확충하고 이용시간대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내 어린이 공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 기존시설들 간의 연계 및 도시 중심시설, 시장 , 주민센터 보건소, 경로당 등과 연계하여 일상적 동선안에서 공공공간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

록 이면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 주변에 접근 가능한 놀이터가 없는 곳은 공공공간 주변의 이면도로나 차량의 통행이 적은 골목길 일부를 시간제로 차량을 통제하여 골목길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차례

Ⅰ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1	연구의 배경	16
1 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2 1	연구의 범위	18
2 2	연구의 방법	18
Ⅱ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22**
1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개념**	22
1 1	마을단위	22
1 2	어린이	25
1 3	공공공간	25
1 4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28
2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필요성**	29
3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유형**	30
3 1	공원 및 놀이터	31
3 2	도서관	32
3 3	기타	33
4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과 접근성**	33
5	**제도 및 정책현황**	37
5 1	관련법규	37
5 2	관련 정책	42

5 3 광진구 내 관련 사업 46
5 4 관련법규 및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46

III 광진구 내 어린이 공공공간 현황 ; 단독 주택지와 아파트 단지 50
1 **대상지 개요** 50
1 1 자연환경 50
1 2 도시조직 51
1 3 교통 및 도로 52
1 4 대상지 주택유형 54
1 5 거주자 특성 및 수요 55
1 6 도시주요시설 62
2 **어린이 교육 및 보육시설** 66
2 1 초등학교 68
2 2 영・유아 교육 및 보육시설 72
3 **공원 및 놀이터** 80
3 1 생활권공원 80
3 2 주제공원 83
3 3 아파트 단지내 공원 및 놀이터 84
4 **도서관** 90
4 1 공공도서관 90
4 2 공립새마을도서관 91
4 3 사립 작은도서관 94
5 **기타** 98
6 **소결** 102

IV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과 도시공간구조 분석 104
1 **서울시 마을만들기와 공공공간** 104

1 1	강동구 서원마을	105
1 2	성북구 장수마을	107
1 3	마포구 성미산마을	109
1 4	소결	112
2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과 도시공간구조 분석**	113
2 1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배치	113
2 2	도시 주요시설 + 도서관 + 공원	114
2 3	초등학교 + 도서관 + 공원	117
2 4	영유아 보육시설 + 교통 + 도서관 + 공원	120
2 5	소결	124
3	**공공공간과 관계망**	125
3 1	공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 관계망	127
3 2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 관계망	129
3 3	아파트 단지내 공공공간 관계망	131
3 4	소결	133
V	**결론**	**136**
1	**연구의 성과**	136
2	**어린이 공공공간 공급 및 관리방법 제안**	137
2 1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기준	137
2 2	단독주택지내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전략	139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40
	참고문헌	**144**

표차례

표 2-1	공원의 개념과 분류	31
표 2-2	놀이터 종류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40
표 3-1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인구수와 인구구성(2014년)	55
표 3-2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교	67
표 3-3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초등학교(2014년)	69
표 3-4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 구성	73
표 3-5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유치원(2014년)	73
표 3-6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 분류(2014년)	74
표 3-7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 정원(2014년)	74
표 3-8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2014년)	74
표 3-9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마을마당(2014년)	81
표 3-10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공원(2014년)	82
표 3-11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체육공원(2014년)	83
표 3-12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생태공원(2014년)	83
표 3-13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아파트단지내 공원(2014년)	84
표 3-14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공공도서관(2014년)	91
표 3-15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공립새마을 도서관(2014년)	93
표 3-16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 문화・체육시설(2014년)	99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개요 18
그림 2-1 어린이 이동 특성 분석 34
그림 2-2 어린이 이동행태별 보폭 및 속도 추정 34
그림 2-3 도로폭원별 사망자수 구성비 35
그림 2-4 어린이와 성인의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 비율(2011) 35
그림 2-5 사고 시 어린이 상태별 사고 발생 36
그림 2-6 서울정책지도 중 '10분동네 프로젝트' 45
그림 3-1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범위(2014) 50
그림 3-2 광진구 전체 교통 및 도로 지도 53
그림 3-3 중곡・구의2동과 광장동 항공뷰(2014) 54
그림 3-4 대상지 주택유형 55
그림 3-5 어린이 연령별 인구비율 56
그림 3-6 대상지 어린이 인구수 56
그림 3-7 광진구 공공공간 수요조사 57
그림 4-1 마을만들기 유형 분류 104
그림 4-2 서원마을 전경 105
그림 4-3 서원마을 공공공간 배치 106
그림 4-4 장수마을 전경 107
그림 4-5 장수마을 공공공간 배치 108
그림 4-6 성미산마을 전경 109
그림 4-7 성미산마을 공공공간배치 111
그림 4-8 바르셀로나 도시 내 공공공간 114
그림 4-9 바르셀로나 도시 공공건축 사례 126

그림 5-1 도시재생방안으로서의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 137
그림 5-2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기준 139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광진구는 현재 7개의 법정동과 15개의 행정동으로 되어있으며, 인구는 2014년 4월 30일 기준으로 159,622세대, 367,893명이다. 광진구는 1995년 성동구에서 분리되면서 강남과의 접근 용이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으로 광장동과 자양동의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초고층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산층 주거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한강 르네상스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주거지와 도시적 인프라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중곡동과 구의동을 비롯한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은 다양한 도시적 인프라가 부족해 광진구 내에 삶의 질적 수준의 불균형은 심각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광진구의 확장과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은 거대 자본을 통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단지를 계획・형성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공공시설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 형성은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아닌 공공시설들을 단순히 소비하는 방식이 되었다. 대규모 단지를 통해 일정한 거리내에 공공공간, 상업공간, 문화공간, 공원 등 자연환경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 외 지역의 도시 속 삶의 질, 일상의 풍요로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파트 중심의 단지 계획에서는 주민들의 커뮤티니와 복지를 위한 공공공간들이 주거지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어 중요한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지는 기본적인 계획조차 되

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주택 유형 간 거주지 환경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낮시간 직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어른들과 달리 어린이(0~13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 안에서 보낸다. 그러므로 마을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간은 어린이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간은 성인을 중심으로 계획・배치되어 있다. 단독주택지는 아파트에 비해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교육・문화의 공공공간들이 부족하여 마을은 오히려 아이들이 방황하는 안전하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단독주택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마을내 공동체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단위 어린이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배치기준 및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공공공간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조건들인 마을, 접근성, 공간사이의 관계성, 인구와 도시조직 특성과 도로 및 교통 등의 도시적 조건들과 지형 등의 지리적 조건들을 인식하여 향후 마을단위 계획 및 마을단위 공간 연구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광진구내 아차산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중곡동과 구의 2동, 광장동 일대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중곡동과 구의 2동은 단독주택지로, 아파트 대단지 계획으로 발전한 광장동은 아파트단지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

- 내용적 범위 : 이 연구에서는 작은 마을단위 생활권의 일상적 삶과 도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마을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그림 1-1 연구개요

2 2 연구의 방법

- 먼저, 놀이터 및 도서관을 실내, 실외 어린이 공공공간의 대표적 유형으로 간주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서울시 혹은 광진구청, 성동광진교육청과

같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본적인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며 실재 현장 답사를 통하여 자료들과 현실들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공공공간들의 실재적 현황을 파악한다.

- 또한 현황 데이터들을 지도위에 나타냄으로써 수치적 현황조사에서 벗어나 지도로 표현 광진구 내의 어린이 공공공간의 현황과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현장 답사를 통하여 내부시설 내역을 파악하여 표로 정리
  - 도시주요시설 및 어린이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시설을 조사해 지도배치작업
  - 시설당 도달거리 및 배치 분석
  - 어린이 공공시설과 보육 및 교육시설과의 관계, 도시중심시설과의 관계 분석

- 아울러 마을 단위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개발이 가능한 유효공간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공간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II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1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개념
2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필요성
3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유형
4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과 접근성
5 제도 및 정책현황

II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1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개념

1 1 마을단위

- 마을의 개념

마을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가 크다. 한국의 전통적 공동체 형성에 기반을 둔 가족과 같은 지역 공동체를 뜻하는 마을은 모든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고, 원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하는 공간[1]이다. 지역의 개념과 달리 마을은 물리적 공간 범주가 아닌 공동체적 범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공동체는 미국의 힐러리라는 사회학자가 지역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의 유대(common tie)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의 이 세 가지 요소 중 지역성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의미가 희미해지고[2] 있다. 그러나 마을에는 분명히 공간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은 지역이나 공동체라는 단어와 달리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만들어가는 특정한 지역적 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다. 법률적 정의의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3]를 말한다.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무리의 크기를 산출하였는데, 그 크기를 150명 정도[4] 라고 했다. 즉, 인간

---

1 진희선, 2012, "주거재생, 공공에서 바라본 마을 만들기", 「건축」, p66

2 이호, 2013, 「마을공동체 교육교재 0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p33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 3. 15) 제2조 2항

4 던바의 수 150(Dunbar's number 150)이라고 하며 서로 기억하고 직접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 150명 정도까지 서로 기억하고 직접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 사전적 의미의 마을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장소, 즉 촌락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마을 개념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으며, 도시공간과 사전적 의미의 '마을'은 어울리지 않는다. 도시는 많은 거주인구 때문에 익명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을은 실명적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의미 때문에 도시에서의 마을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규정은 '관계망의 긴밀성'[5] 정도로 삼을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있는 관계망의 정도와 관계를 맺는 이유이다. 마을은 커뮤니티이고 네트워크이며 공동의 경험과 기억을 근거로 한 문화적 영역이다.

- 마을의 형성과정[6]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초토화되고 행정력이 영향력을 잃어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터를 재건해나갔다. 이후 경제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된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는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도시로 유입된 빈민들의 집단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 판자촌 철거를 시작으로 1970년대에 본격적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강제이주 당하는 도시 빈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도시 빈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삶터를 만들어나가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마을만들기가 운동으로 추진된 것은 몇몇 시민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활동이 이뤄지면서부터였다. 부산 반송동, 대구 삼덕동,

---

규모로 150명 정도를 산정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4, 「서울마을공동체 사업백서 _ 서울・삶・사람」, 서울특별시, pp17~18

6 마을형성과정은 김은희・이영범의 「도시의 마을만들기 동향과 쟁점(국토연구원, 2013)」의 시기적 구분을 참고하였다.

서울 성미산 마을 등이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마을만들기 운동은 행정과 법체계에서 담아낼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방안이 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다.

행정정책에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반영된 것은 2002년 인사동 지구 단위계획에서부터였다. 행정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행정의 지원과 민관 협력 방식의 유효성을 서울시와 전문가가 인식하게 되면서 마을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주민참여가 도시계획의 새로운 수법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마을단위 계획은 2005년 중앙정부 차원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의 '북촌마을가꾸기', '휴먼타운' 및 '경관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 마을만들기 혹은 마을 단위 도시계획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정석(1999)의 연구[7]에서였다. 이 연구는 마을단위도시계획을 '주민들 자신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삶터, 즉 일상생활환경의 개선 및 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계획'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김은희(2012)는 마을만들기를 '자생적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운동', '계획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 등 세 가지로 구분[8]하였다. 특히, '계획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는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가 결합된 개념으로 주민참여를 도시계획 과정에 적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도시계획은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단순히 행정과 전문가에 의해 주도하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의 과정에 공공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을단위계획'은 제도적인 틀 속에서 행정의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당 지역 혹은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

7 정석, 1999,「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8 김은희, 2012, "마을만들기는 운동이다.",「우리, 마을만들기」, 나무도시, pp11~39

화하는 다양한 계획과 사업[9]을 의미한다.

1.2 어린이

-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에 방정환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라는 글자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국어대사전(1981)』에는 “어린이란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 아이란 뜻이다.”[10]라고 적혀있다. 학자에 따라서 어린이 시기를 다양하게 보기도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발달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0~2세까지를 영아기, 만 3~6세까지를 유아기, 만 7~12세까지를 아동기라고 부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만 12세 미만의 연령층을 통틀어 ‘어린이’라고 부르되 연령의 범위는 발달심리학 연령 구분에 따라 0~2세를 영아, 3~6세를 유아, 7~12세를 아동이라고 한다.

1.3 공공공간

- 공공성

  공공이란 사회나 단체의 구성원에서 공동으로 속하거나 관계되는 것이며, 공공성(公共性)의 사전적 정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치우침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고자 하는 성격 또는 여럿이 함께 하는 성질’[11]이란 어원적 의

9 양재섭・김인희, 2012,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서울연구원, p15

1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1 최기원・심우갑, 2004, “지역문화시설의 건축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미도 갖는다.

공공성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시민의 삶을 지속해나갈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가치이다. 다수의 사람과 두루 연관된 문제라면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12]

일제 강점기 도시는 민중을 관리하는 체제였고 농촌은 식민지 본국을 위한 식량기지였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공공성은 정부가 주민에게 베푸는 시혜성 정책으로 대체되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함께 구성한다는 과정의 의미가 사라졌다. 이러한 역사적 특징 때문에 국가에게 요구하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혜적 관점으로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국가는 공공성을 담보할 유일한 주체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치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공공성이 공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성(the common)의 과제를 안고 있기[13] 때문이다.

지난 우리의 역사에서도 함께 일하고 놀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했던 두레 등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성을 유지시킨 것은 사람들의 연대와 관계와 문화[14]이다. '사람들의 관계가 만드는 문화'는 가장 중요한 공공성의 중요한 토대이다.

공공성의 중요한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15]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공사업・공공투자・공적자금・공교육 등의 국가가 법이나 정책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둘째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common)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공의 복지, 공익, 공동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24

12 하승우, 2014, 『공공성』, 책세상, pp15~16

13 하승우, 2014, 『공공성』, 책세상, p13

14 하승우, 2014, 『공공성』, 책세상, p11

15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2009, 『민주적 공공성』, 이음, pp18~19

의 질서, 공공심 등의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긍정적 함의를 가진다. 셋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open)는 의미이다. 정보공개, 공원 등의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를 뜻한다.

ㅇ 공공공간

공공공간의 건축법상 정의는 가로, 공원,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일정한 축제 과정 속에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일종의 기능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장소'[16]가 공공공간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7)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최근 공공공간의 개념을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있고, 공공에게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건축기본법의 제 1장 3조에는 공공공간이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정의되어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도시는 식민지 시대에 발달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도시는 민중을 관리하는 체제였고 농촌은 식민지 본국을 위한 식량기지였다. 식민지 시대는 공설(公設), 공립(公立)이라는 말이 등장한 시기이지만 그 시설들은 대부분 조선민중과 무관한, 이주한 일본인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물리적인 공간은 존재하였으나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결정하는 과정은 제거되어, 19~20세기 민중 반란의 토대였던 장소들인 시장이나 광장 등을 밀어내고 시민이 공적인 삶을 누릴 장을 대체하며 공공성이 점차 축소되었다.[17]

16 임숙현, 2002, "도심의 공공공간으로서의 보행자 전용가로 모형 사례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7 하승우, 2014, 『공공성』, 책세상, pp12~13

공공적 공간은 불특정다수에 의해 짜여진 담론의 공간이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에 따르면 공공적 공간은 특정한 장소를 넘어선 공간[18]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공성은 공동체가 안을 형상화하고 균질한 가치를 갖는 것과 달리 바깥을 형상화하고 갖는 가치가 서로 이질적이다. 또한 복수의 가치와 의견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공간을 뜻하며, 차이를 조건으로 생성되는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공공성의 의미를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공간은 국가 혹은 정부와 관련된 공적인 공간이거나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 공간이다. 또한 누구나 정보 혹은 거리 등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공공공간은 세 가지 공공성의 의미를 모두 갖춘 공적이며 특정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1.4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 마을단위 : 행정단위와 달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드는 영역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마을단위는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로서의 마을단위를 뜻한다.

- 어린이 : 마을영역에 대한 고민은 종일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마을 안에서 하는 어린이에게 맞춰져야 하며 이때 어린이란 만 12세 미만의 영아, 유아, 아동을 포함한다.

- 공공공간 : 공공성의 의미에 비추어보아 국가나 정부에 관련된 공적인 공간이거나 모든 사람과 공통적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열린 공간을 말한다.

---

18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 류수연 · 윤미란 역, 2009, 『민주적 공공성』, 이음, p20

- 이 연구에서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은 일상 생활권내에 위치하여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가 접근 및 이용하기에 제한이 없고 어린이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자 한다.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혹은 혼자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성 혹은 정보의 차이에 의하지 않고 공원, 도서관, 길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린이 공공공간으로 한다.

2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필요성

- 어린이 성장

  어린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다양한 세대와 만날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기관 이외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 양육자의 사회적 고립

  최근에는 카페 식당 등에서도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드존이 많아져 아이를 데리고 집밖을 나가 시간을 보낼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어린이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삶에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양육자는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와 공간을 잃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일반 성인에 비해 이동성이 떨어지는 어린이를 키우는 양육자는 마을안에서 어린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 비용의 문제

  사회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공공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양육자는 공간과 장소의 필요를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주거지와 거리가 먼

공원 및 시설을 방문하게 될 경우의 비용과 사설 놀이공간, 키즈카페 등을 이용하는 데의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경험과 양육자의 삶의 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은 가정과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교육기관 외의 외부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 마을공동체 형성의 장
  양육자들은 마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유사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성미산마을 등 자발적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는 양육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 마을안의 어린이 공공공간은 다양한 사람과 작은 단위의 마을공간들을 연결하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3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유형

- 현재까지 어린이 관련 연구논문이나 법규, 정책에서도 어린이 공공공간이라는 별도의 분류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시 10분동네 프로젝트에서는 “마을 단위 사회서비스 시설”를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마을단위 사회서비스 시설 중 어린이가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 그 중에서도 실내공간으로는 도서관, 실외공간으로는 공원 및 놀이터를 어린이 공공공간 기본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 어린이 공공공간은 정보나 재정적인 제한없이 언제든지 일상적 생활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특성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1 공원 및 놀이터

도시공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 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관리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공원 계획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민 1인당 6㎡ 이상, 개발 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은 주민 1인당 3㎡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2-1 공원의 개념과 분류

분류				유치거리기준	규모기준
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소공원		제한없음	
		어린이공원		250m 이하	1,500㎡ 이상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500m 이하	10,000㎡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	1,000m 이하	30,000㎡ 이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제한없음	100,000㎡ 이상
			광역권 근린공원	제한없음	1,000,000㎡ 이상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생태공원, 체육공원 등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의 계획 및 설치기준

- 생활권공원은 도심 생활권에 위치한 1만㎡ 이하의 소규모 도시공원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네쉼터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도시공원 정비를 위한「생활공원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생활권 공원은 유치거리나 규모에 따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구분하여 설치 및 관리되고 있다.

-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 그 목적에 따라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구분되며 특별시・광역시나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들을 포함한다.

3.2 도서관

- 도서관은 단순히 독서를 위한 공간뿐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의 역할도 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독서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과 각종 생활정보를 상호교환・공유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통해 자연스러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거점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도서관, 공립 새마을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공공도서관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공공성을 지니며 운영이나 도서대출,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린이 열람실 등이 있다.

- 공립새마을도서관은 새마을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대부분 주민센터에 위치한다. 일부 자치구는 새마을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새마을자치회에서 새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공립새마을도서관으로 따로 분류한다.

- 작은도서관은 법적인 의미로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3.3 기타

- 체육시설

  2014년 서울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면적은 1.25㎡로 파리(4.21㎡), 뉴욕(5.9㎡)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수치는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접하고 즐길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스포츠는 시민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 복지 수단 중의 하나로 여겨지며 공공 체육시설의 확보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4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과 접근성

- 어린이 접근성

  어린이들은 도시내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성인과 구분해서 고려하여야 한다. 어린이는 이동과 보행 특성에서 성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영유아는 이동 시 한 명 이상의 양육자가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보행 속도를 고려 시, 성인의 키 170cm와 보폭 66cm를 기준으로 하고 만4세 남아 기준으로 평균키 102cm라고 했을 때 비례로 계산할 경우 보폭은 38cm가 도출된다. 연령에 따라 어린이들의 보폭과 보행속도는 큰 차이가 있다.

  보폭 및 속도뿐 아니라 어린이와 양육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보행 패턴에 따라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영아는 양육자가 안거나 유모차를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자가 어린이를 동반하여 이동한다고 했을 때 유모차를 사용하는 경우, 아기띠를 사용하는 경우, 아이를 둘 이상 동반하는 경우, 동반 어린이가 초등학생인 경우 각각 이동가능거리와 접근성은 다를 수 있다. 단독주택지에서 차량이 자유롭게 양방향 이동하는 이면도로에서 어린이

와 동반 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의 움직임과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공간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ㅇ 이면도로와 안전

- 단독주택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도로망은 3~12미터로 되어 있다. 단독주택지의 어린이 공공공간을 고려할 때 공간을 오고가는 어린이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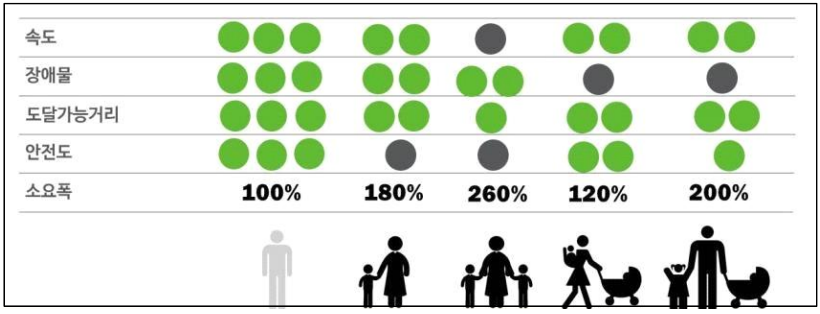


그림 2-1 어린이 이동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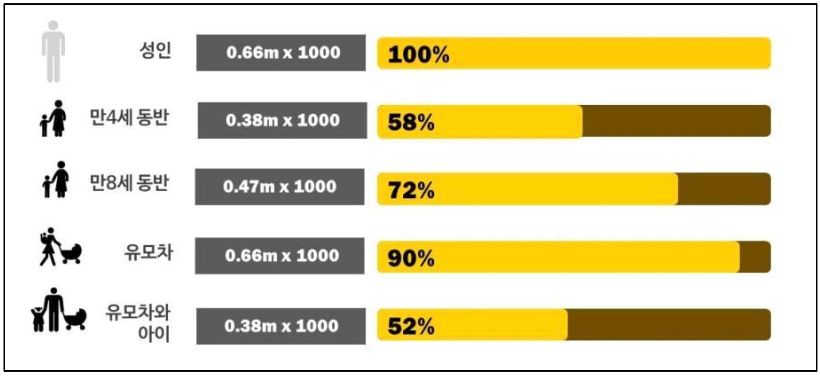


그림 2-2 어린이 이동행태별 보폭 및 속도 추정

- 2012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235명인데, 이 중 58%는 폭 13미터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중곡동 및 구의 2동의 이면도로는 폭 5~6미터가 가장 많았으며 도로폭원별 사망자수 구성비를 보여주는 표에 따르면 3~6미터 미만의 도로폭에서 보행자 사고발생비율이 21.7%에 달했다. 차량폭이 최대 2.5미터라고 가정할 때 폭 6미터의 이면도로는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 한 대가 더 지나갈 수 있는 폭이다. 이때 보행자는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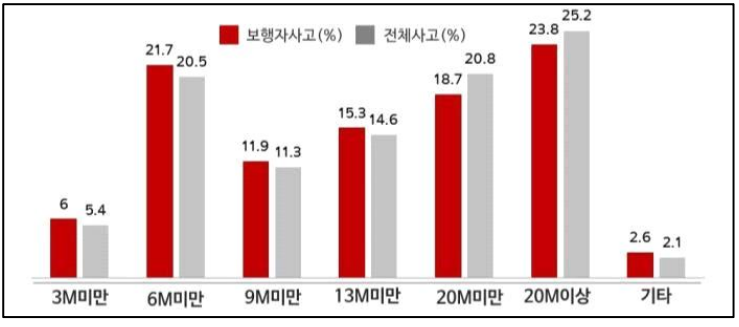


그림 2-3 도로폭원별 사망자수 구성비
자료 : 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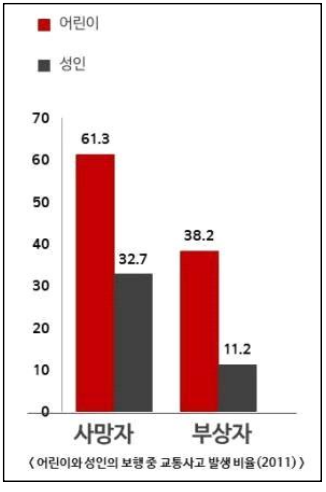


그림 2-4 어린이와 성인의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 비율(2011)
자료 : 경찰청

- 2011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인(21세~60세)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2.7%, 부상자의 11.2%만이 보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반면, 어린이(13세 미만)는 교통사고 사상자의 61.3%, 부상자의 38.2%가 보행 중 발생하였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교통사고에서는 사망자나 부상자 모두 보행자가 가장 많고 자전거가 그다음이며 이 두 항목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중 92.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사망자는 1세(15.2%), 8세(11.8%), 7세(11.1%) 순이었고 부상자는 12세(11.1%), 8세(10.3%), 10세(10.1%) 순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어린이 보행자들의 안전이 도시안에서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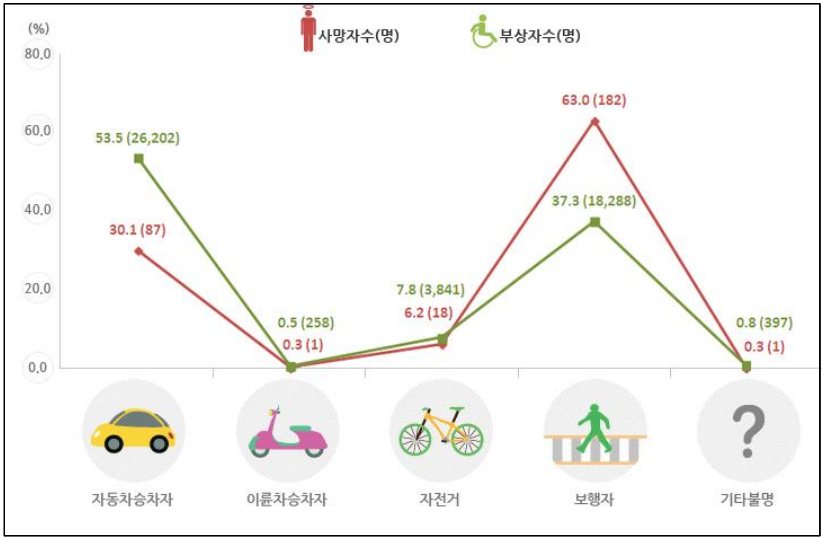


그림 2-5 사고 시 어린이 상태별 사고 발생
자료 : 도로교통공단 KoRoad웹진138호

5 제도 및 정책현황

5 1 관련법규

단독주택지의 공원 및 놀이터의 배치 및 설치에 대한 법규는 현재 없으며 관련 법안으로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인근놀이터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관련 법안이 있다.

5 1 1 공원 및 놀이터 관련법규

1) 면적 및 배치관련

- ㅇ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
- –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 기준 :
- • 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에는 영유아 1인당 2.5㎡ 이상의 놀이터를 확보하고 모래밭(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 및 놀이시설 3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 • 인근놀이터를 확보하는 경우, 영유아용 놀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놀이터로 인정 ※ 인근놀이터의 놀이시설물이 일정연령층 이상의 유아 대상으로 설치된 경우, 옥외 또는 옥내 놀이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
-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 • 인근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용놀이터이거나 당해 보육시설 대표가 본인소유 토지(본인명의로 임차한 토지 포함)에 설치한 실외놀이터이어야 함(인근건물의 실내놀이터는 인정 불가) ※ 기존 시설은 대표자, 소재지, 정원 및 종류 변경 및 증・개축 시 적용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보육시설로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차도(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 :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함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 공동주택 놀이터 설치 기준

-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 (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세대당 3(시 군지역은 2)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시 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경우는 300(시・군지역은 200)에 10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 1(시 군지역은 0.7)을 더한 면적

– 설치기준완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제47조

-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 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

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상업지역 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의한 상업지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에 20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 1을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2) **시설 관련**

-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 대상인 놀이시설물이 설치된 놀이터 바닥의 기준은 상기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치
- 옥외놀이터(대체놀이터 포함)는 영유아 1인당 2.5㎡ 이상의 규모로 설치함
- 영유아용 놀이터에는 아래의 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 중 3종 이상을 설치함. ⅰ)(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 :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시설물 또는 놀이기구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 2가지 이상을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놀이시설 1종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ⅱ)(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기구로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이며,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iii)(모래놀이기구)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 기구로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놀이터에 추가로 구비할 수 있는 놀이도구(권장사항)- 물놀이도구, 탈 것, 사회극적 놀이도구(놀이집, 자동차등 탈 것, 소꿉놀이), 게임놀이, 공놀이 등

- 놀이기구 설치 시 유의사항

ⅰ) 대근육활동 놀이시설(기구)은 반드시 1종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 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를 영유아별로 각각 설치하는 경우는 놀이기구 2종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함

ii)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시설(놀이기구)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확보하여야 함

iii) 옥상놀이터에는 고정식 대근육활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놀이터에 고정식 놀이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즉시 철거하도록 행정지도

ⅳ) 놀이터 종류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표 2-2 놀이터 종류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구 분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시설・놀이기구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모래놀이 기구
옥외놀이터		○	△	○
대체 놀이터	실내놀이터	△	○	○
	옥내중간놀이터	△	○	○
	옥상놀이터	×	○	○
	인근놀이터	○	×	○

※ 설치가능(○), 설치불가(×), 현장여건에 따라 인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제47조

-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8.27.〉

-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6.8.〉
-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6.6.8.〉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8년 1월 27일 제정 시행 : 전국의 어린이놀이터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행정부가 위탁한 전문기관의 놀이시설 안전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폐쇄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6만2315곳의 어린이놀이터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2만4236곳(39%)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설치검사를 받았어도 안전기준이 미달된 놀이터의 폐쇄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전체 놀이터 8,847개소 중 3,025곳이 안전검사를 마치지 못했으며 8월 중순 현재 서울시에서만 345곳의 놀이터가 폐쇄되었다.

5.1.2 도서관 관련 법규

- 공공도서관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급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 지원하도록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다.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5.2 관련 정책

-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국토교통부)
  - 2013년 4월8일 발표
  - 목표 :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근린생활권에 국비를 지원하여 생활공원을 조성하고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쉼터”를 조성(동네쉼터 : “도심 생활권에 위치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도시공원으로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 내용 : 생활공원사업이란 도시 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녹색 여가공간인 ‘생활공원’ 대상지를 지자체들로부터 제안받아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낙후된 도시생활권 안에 1만㎡ 이하 생활공원이나 잠시 휴식을 취할수 있는 초소형 쌈지공원 등 동네쉼터를 정비・조성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내년 100곳을 포함해 오는 2017년까지 총 1,000곳의 생활공원을 전국에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추진된다.

- 10분동네 프로젝트(서울시)

  ‘10분 동네 프로젝트’는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

거'에서 각종 공공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낸 바 있다. 서울시는 2012년 3월 23일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도서관・소공원・생활체육・문화・보육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10분 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정책지도(서울시)

서울시는 2014년 7월28일 '서울 정책지도'를 시 도시계획국이 추진하고 있는 '10분 동네 프로젝트'를 주제로 제작해 스마트서울맵 앱 및 서울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 누구나 다양한 마을 공공공간들을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단순히 숫자를 통한 배치가 아니라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전체 인구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총1만4,371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이를 각각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공간분석 기술을 적용해 연령별 인구밀집도, 도보접근권역도, 향유도, 수요예측도 등을 도출해 지역 간 차별없는 균형적인 시설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 올 연말까지 ▲안전 ▲복지 ▲문화 ▲소통 ▲경제 ▲환경 등 6개 분야 180여종의 정책지도를 제작・공개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러한 인구밀집도, 도보접근권역도, 향유도 등을 종합해 해당 시설의 우선 설립 필요지역을 분석하고, 이를 앞으로의 시설확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19]

ㅇ 시설공급계획 및 공급실적('11~'13년)(서울시)

사회서비스시설 유형별로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11년~'16년 기간 중 시설공급계획 및 공급실적('11~'13년)

19 출처 : http://citybuild.seoul.go.kr/

- 〈도서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10분 이내 도서관 이용사업)
  - 계 획 : '11년~'15년 132개소(공공도서관 32, 작은도서관 100)
  - 실 적 : '11년~'13년 193개소 확충
    (공공도서관 30, 작은도서관 163)

  ※ '13년 도서관 확충 73개소(공공도서관 9, 작은도서관 64)
- 〈보육시설〉 여성가족정책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 계 획 : '12년~'14년 280개소 확충
  - 실 적 : '12년~'13년 191개소 확충(2013년 104개소)

  ※ 2013년 어린이집 확충 262개소(국공립 104,민간 158)
- 〈노인여가복지시설〉 복지건강실(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 계 획 : '11년~'16년 32개소 건립
  - 실 적 : '11년~'13년 14개소 건립

  ※ 2013년 확충실적 28개소(경로당 21, 노인교실 6,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1)
- 〈생활체육시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2013년 확충실적 10개소(간이운동시설 5, 체육시설 4, 테니스장 1)
- 〈공원〉 - 푸른도시국 (10분동네 공원 만들기사업)
  - 계 획 : '12년~'14년 쌈지마당 28개소, 주차장 동네공원화 18개소, 커뮤니티 공원조성 2개소
  - 실 적 : 쌈지마당 2개소, 주차장 동네공원화 2개소, 동네숲가꾸기 28개소, 기타 38개소

  ※ 2013년 공원확충(개발사업 포함) : 근린공원 2, 소공원 3, 어린이공원 1, 주차장 동네공원화 1, 옥상녹화 7, 골목길가꾸기 등 3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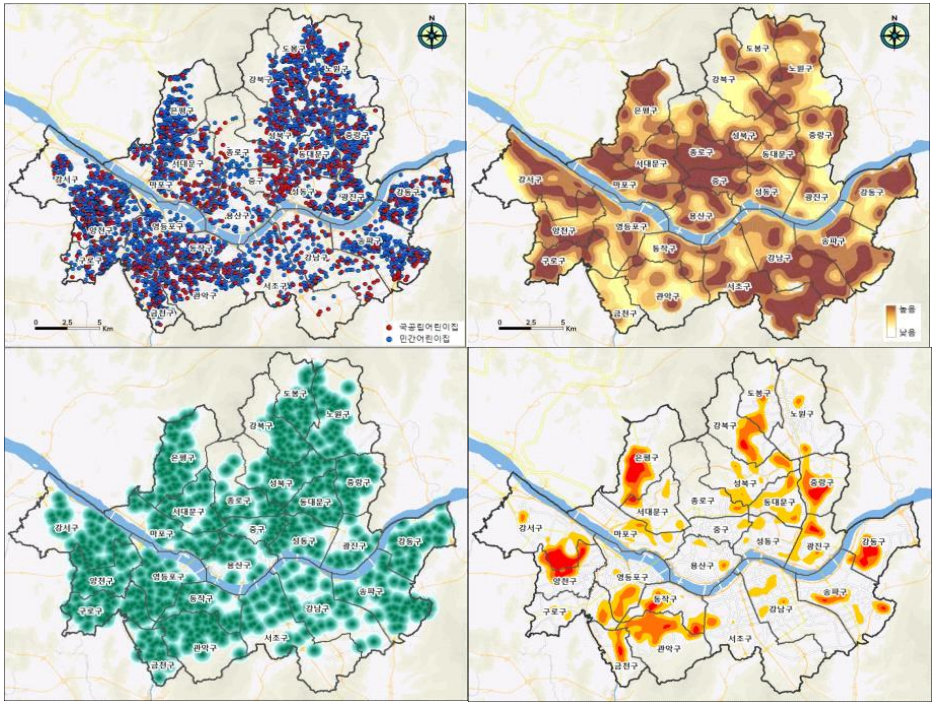


그림 2-6 서울정책지도 중 '10분동네 프로젝트'
자료 : 서울시 정책지도 홈페이지 : http://gis.seoul.go.kr)

- 상상어린이공원(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어린이공원 중 노후화되어 시민들이 외면하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테마놀이공간 및 쾌적한 쉼터와 커뮤니티공간으로 재조성한 사업이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25개 자치구 노후 어린이공원 304개소를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재조성하였다.

-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서울시, 2014)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은 앞으로 보행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서'로서 보행 관련 모든 시 정책・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고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만

들기 위한 총 10가지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쾌적하게 : 보행전용거리(차없는 거리)/보행친화구역
- 안전하게 :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어린이보행 전용거리/자동차 속도 제한 강화
- 편리하게 :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신호체계 개선/도심교차로 전체횡단보도 설치

5.3 광진구 내 관련 사업

- 마을사업(서울시 및 광진구 지원) : 마을지도 그리기, 어린이 책읽기모임, 광진마을미디어, 반편견 인형극모임, 마을길걷기, 전래놀이마당, 누구나밴드 등
- 용곡초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개선공사(2013)
- 용마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행전용거리(예정)
-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2014년 10월 개관)

5.4 관련법규 및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어린이 공공공간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영유아 보호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 단독주택지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나 도서관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 공공주택의 놀이터 관련 규정마저도 완화되어 공동주택에도 놀이터 없는 단지가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4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15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세대수×2.5㎡)은 그대로 유지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제

외시키면, 놀이터가 없는 아파트 단지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어린이놀이터 → 운동시설, 경로당 → 어린이집)을 행위신고(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는 주택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아예 필수도입 시설에서 제외한 상태이다. LH공사도 어린이놀이터 등 녹지공간을 축소하고 아파트로 증축하는 등 주거 질적인 면보다 수익성 위주로 공동시설을 설치해 앞으로는 아파트단지의 어린이 놀이터조차 앞으로 보장받기 어렵게 되었다.
- 이미 수립한 정책과 마스터플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거나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총 5,225억원을 들여 전국에 총 1,000개의 생활공원을 수립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지난해 말 수립했지만 정작 2014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20곳에 불과하며 2014년 첫해부터 예산부족으로 실행이 지체되고 있다.
- 서울시는 최근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생활권 정책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 혹은 마을의 지형적 도시적 환경에 대한 기본 연구가 충분치 않아 일상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좀 더 세심한 자료축척 및 지역연구가 필요하다.
- 10분동네 프로젝트와 같이 거리개념의 접근성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성인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행태적 거리도 포함한다.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시조직에 따라 접근 거리는 다를 수 있으며 보행행태가 어린이는 성인과 달라 장애물 도로폭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최근 광진구내의 어린이관련 사업은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프로그램 위주의 마을 공동체지원사업은 주민주도형의 사업이고 주민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업제안

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존 공동체 단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스스로 프로그램 제안서를 만들 수 없으므로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 학력에 따라 마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가 구분되어 프로그램 위주의 어린이사업의 한계를 보여준다.

- 최근 서울시와 광진구가 초등학교 근처의 보행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외 공공이 주도하는 어린이 공공공간 사업은 전무하다. 어린이 공공공간과 관련된 신규부지 확보나 새로운 시설 개설은 없으며 공모들 통해 받은 지원금으로 주민들이 만든 작은도서관이 유일하다.
- 작은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게 하거나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방법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시설내용과 형평성 있는 시설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III 광진구 내 어린이 공공공간 현황 ; 단독 주택지와 아파트 단지

1 대상지 개요
2 어린이 교육 및 보육시설
3 공원 및 놀이터
4 도서관
5 기타
6 소결

III 광진구 내 어린이 공공공간 현황 ; 단독 주택지와 아파트 단지

1 대상지 개요

- 대상지 범위

  광진구 내의 단독주택 밀집지인 중곡동 및 구의2동과 아파트 밀집지역인 광장동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지와 아파트 밀집지역의 시설배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중곡동+구의2동 광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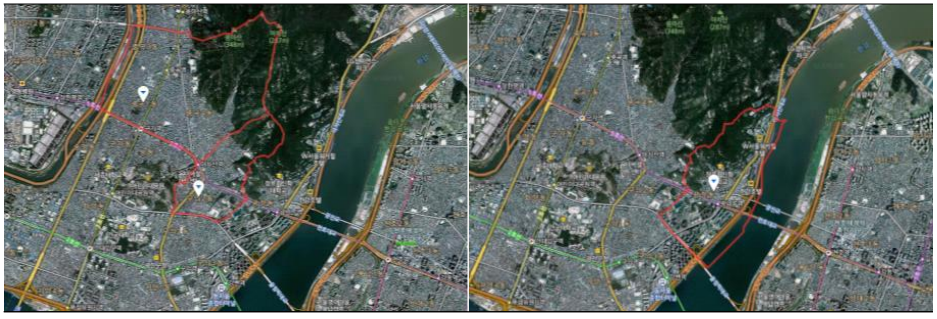


그림 3-1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범위(2014)

1 1 자연환경

광진구는 동쪽과 남쪽으로 한강에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중랑천과 맞닿아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아차산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으로 인접 자치구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광진구는 한강에 면하고 있고 광진(廣津)이라는 명칭도 조선 시대 한강의 나루터였던 광나루에서 유래하였으며, 한강의 중요한 나루터로 삼국

시대부터 서울~부산에 이르는 교통 중심지였다. 광진교와 천호대교 개통으로 나루터의 기능은 없어졌지만 강변북로를 통해 교통이 좋은 지역이 되었다. 아울러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중심으로 한강공원들이 발달하면서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다.
광진구의 동북 경계에는 용마산(348m)와 아차산(287m)을 정점으로 하는 산지가 있다. 아차산에 오르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으로 광진구는 삼국시대 백제의 요충지였으며, 백제가 고구려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아차산성과 이후 고구려의 산성들이 남아 있다.

1 2 도시조직

정부는 서울의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1972년에 도심업무지구 개발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개선 등 거대한 정책을 담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1972~1982년)을 수립[20]하였다. 동쪽에는 주택지구를, 서쪽에는 행정 및 사업지역을 위치시키는 개발계획과 강남과 강북을 잇는 순환선을 건설하고 순환선 내부는 개발지역을, 외부는 주택지역을 건설하였다. 또한 대규모 주택 건설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1971년 완공된 동부이촌동단지를 시작으로 한강변을 따라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었다. 1974년 완공된 반포단지의 성공으로 서울의 동쪽으로는 한강변 대단지 아파트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광장동은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계획 속에서 특히,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과 함께 중산층의 새로운 주거지로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광장동은 학군이라는 특수조건과 맞물리면서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단지들이 발달하였다. 1978년 워커힐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2년 현

20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역, 2007,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p35

대 힐스테이트까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가 건설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와 달리 중곡동과 구의2동은 아차산 아래 경사지에 중산층을 위한 단독주택지로 발달되었던 곳이다. 그리고 이후에 단독주택들이 빌라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단지 단위의 계획을 통해 형성된 것과 달리 자연적 형태로 발달한 단독주택지는 단독주택들이 빌라로 새로 지어지면서 주차장, 공원 및 놀이터 등 도시기본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도시밀도가 높아졌고 단독주택지에서의 도시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1 3 교통 및 도로

- ㅇ 외부와의 연결
- 광진구는 예부터 나루터였던 광나루(광장동)의 광진교를 비롯하여 천호대교・올림픽대교・잠실대교・잠실철교 등이 강동구 및 송파구와 연결되어 있어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목 구실을 하며, 청담대교・영동대교를 통해 강남으로 접근도 용이하다. 광진구는 한강으로 동남쪽이 둘러싸여 있지만 대로와 연결된 교량들을 통해 인접 자치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 광진구의 도로는 한강변을 따라 강변북로로 접근이 용이하고, 중랑천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동서로는 천호대로, 광나루로, 아차산로가 가로지르고, 동일로・능동로・자양로가 남북으로 가로지르면서 간선도로들과 연결되어 도로연결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8차로 이상의 대로들이 지나면서 도시구조는 대로들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발달되었으며 각기 다른 공간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 광진구는 순환선인 지하철 2호선과 서울 도심 및 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5호선이 동서로 가로지르고, 서울의 남북을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이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5호선의 군자역-아차산역-광나루

역, 2호선의 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 7호선의 중곡역-군자역-세종대역-건대입구역 등의 역사를 중심으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전국으로 연결되는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2 광진구 전체 교통 및 도로 지도
자료 : 네이버지도

- 내부 연결

대상지는 아차산과 천호대로를 통해 남북 경계가 나누어지며 중랑천과 중랑천 및 접하는 동부간선도로, 한강과 강변북로를 통해 동서의 경계가 구분된다.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버스노선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마을버스 등 마을단위로의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편은 부족한 실정이다. 직선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지역 사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경로는 복잡하고 동선이 긴 경우가 많다. 중곡동과 구의2동 대상지는 대로로 나가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대중교통을 통한 마을단위의 이동성이 떨어진다.

- 주택지 이면도로

  단지내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광장동과 달리 단독주택지인 중곡동과 구의2동의 단독주택지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최근 새로 지어지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주차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이 규모나 수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지의 이면도로들은 대부분 주차된 차들로 채워져 있으므로, 마을공간들이 활성화되고 도보 이동성과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차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중곡동+구의 2동 광장동

그림 3-3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항공뷰(2014)
자료 : 네이버지도

1 4 대상지 주택유형

중곡동과 구의2동 일대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단독주택지이고, 광장동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어서 같은 광진구이지만 주택유형에 따른 도시공간구조나 도시시설들의 차이가 명확하다.

그림 3-4 대상지 주택유형

1.5 거주자 특성 및 수요

- 인구 현황 및 인구구조

  중곡동, 구의2동, 광장동의 인구수와 인구 구성은 표 3-1과 같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광장동은 인구 대비 어린이 구성비가 만 4세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만 7세 이후에는 중곡동, 구의2동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다.

표 3-1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인구수와 인구구성(2014년)

(단위 : 명)

구분	총인구	어린이 인구	영아 (0~2세)	유아 (3~6세)	아동 (7~12세)
광진구	367,893	35,411	8,316	10,699	16,426
중곡1동	16,418	1,300	388	417	495
중곡2동	22,788	2,100	499	614	987
중곡3동	18,499	1,548	422	453	673
중곡4동	31,768	2,867	768	841	1,258
구의2동	27,427	2,904	654	901	1,349
광장동	37,201	5,733	790	1,576	3,367

자료 : 광진구 주민등록 월별통계(통계개발원, 20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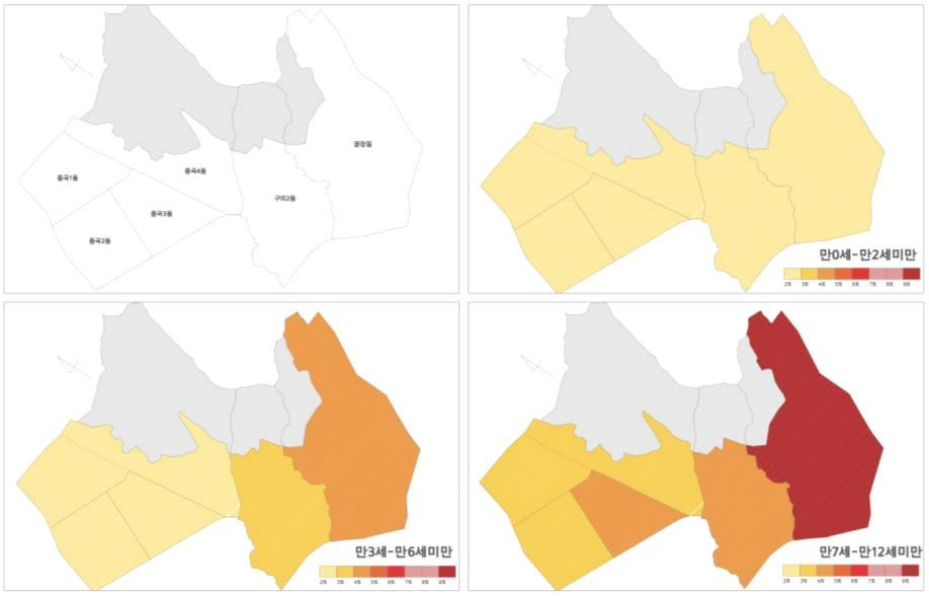


그림 3-5 어린이 연령별 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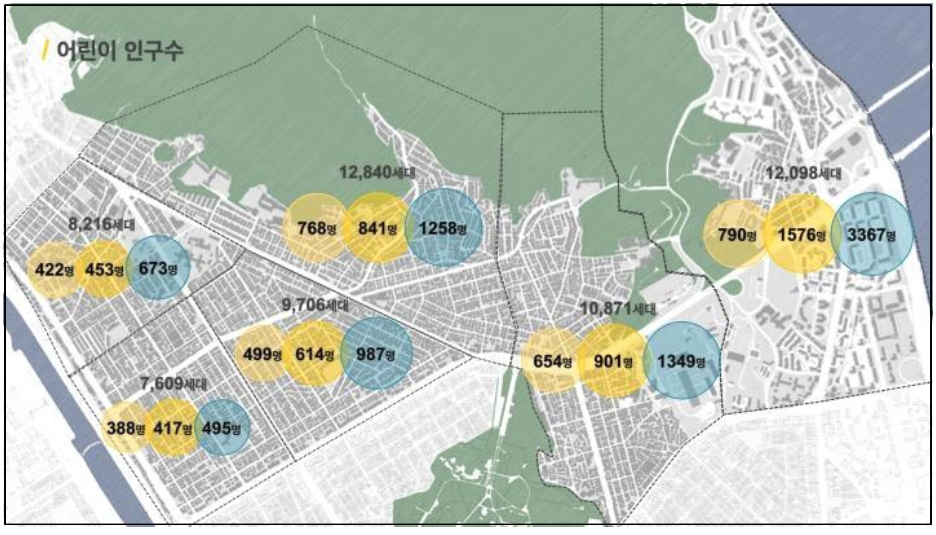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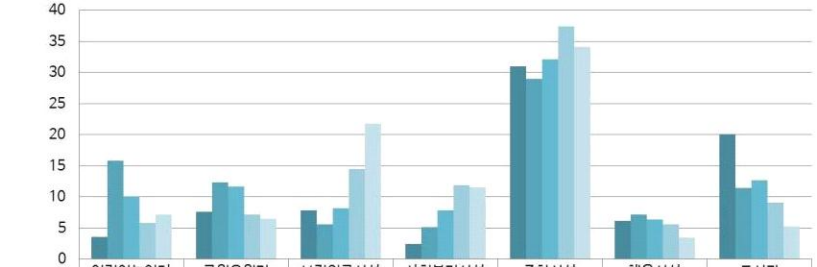


그림 3-6 대상지 어린이 인구수

ㅇ 대상지 공공공간 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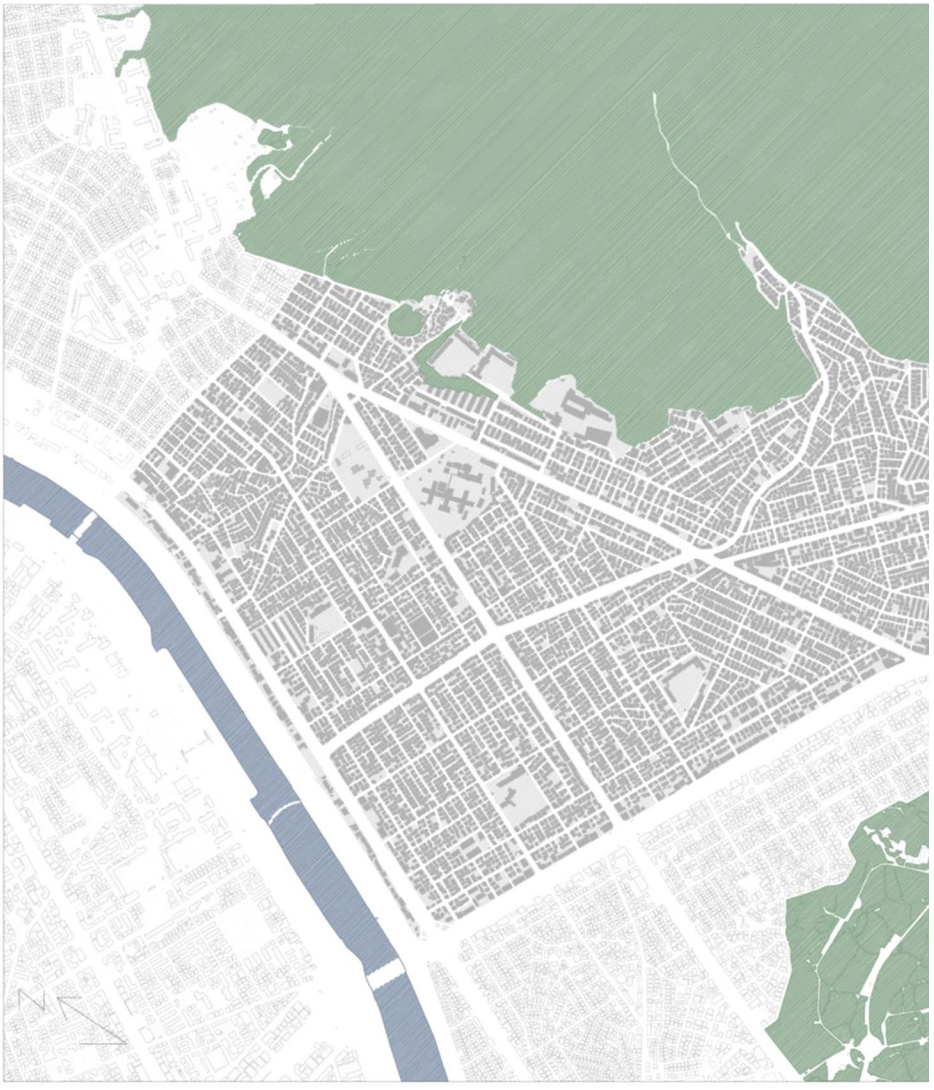
대상지의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2010년에 실시된 광진구 사회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광진구에 필요한 공공공간으로 다음과 같은 공간들이 언급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30~40대의 응답에서 어린이놀이터, 공원, 도서관 등의 요구가 많았으며 50대 이상은 사회복지시설을, 20~49세는 도서관을 필요한 공공공간이라고 대답했다.



	어린이놀이터	공원유원지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20-29세	3.6	7.6	7.8	2.5	31	6.2	20.1
30-39세	15.8	12.3	5.6	5.2	29	7.2	11.5
40-49세	10.1	11.7	8.2	7.9	32.1	6.4	12.7
50-59세	5.8	7.2	14.5	11.9	37.4	5.6	9.1
60세이상	7.2	6.5	21.8	11.6	34.1	3.5	5.3

그림 3-7 광진구 공공공간 수요조사
자료 : 광진구2010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도시조직/자연환경



분석 대상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0 100 200 400
N

교통

분석 대상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지하철

0 100 200 400
N
5호선
지하철 7호선
지선,간선,광역버스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주차장

1 6 도시주요시설

도시주요시설은 주민센터, 보건소, 시장, 경로당 등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 주민센터

주민센터는 각 동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다양한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자주 찾는 마을 내 중심 공공시설이다. 주민자치센터로서 자치회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며 평생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구의2동은 천호대로라는 10차로 대로로 동이 나누어져 있어 대로 반대편 절반의 주민에게는 주민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광장동은 아파트 단지별로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광장동 주민센터는 아파트 단지 외 지역만의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중곡4동 주민센터는 새롭게 신축하면서 주민들의 시설로 이용되도록 작은도서관(새마을문고)을 1층에 배치하였으며, 강의실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곡3동 주민센터도 작은도서관이 1층에 배치하여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센터와 인접하여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해 있다.

- 보건소와 경로당

보건소와 경로당은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보접근성과 개방성이 중요한 시설로 노인의 여가와 복지를 위해 중요한 중심 공간이다. 빠른 속도의 노령화로 독거 어르신 가구 증가와 노년층 빈곤율 증가라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마을 내에서 해결하고 기본적 건강과 여가에 대한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공간의 확보도 중요하다. 이러한 공간은 주로 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확보되어 있다. 광장동 아파트 단지들을 단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경로당, 실

버타운 등의 명칭으로 확보되어 있어 단지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중곡・구의동의 단독주택지에는 그 수가 많지 않고 규모도 작은 편이며 외부공간이나 도시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곳도 드물다. 또한 단순한 경로당이 아닌 교육이나 문화, 복지의 혜택을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시설은 광진구내 군자동에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상지 내부에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은 중곡종합건강센터(광진구 보건지소)의 3층에 위치한 치매지원센터뿐이다.

ㅇ 시장

시장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도시내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며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최근 마트나 인터넷쇼핑의 발달로 재래시장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중곡동이나 구의2동의 경우 인접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없어 대상지 내의 제일시장과 신성시장은 여전히 지역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광장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들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이동하면서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아파트상가들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상가들이 단지 내부가 아닌 대로변을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도시주요시설

분석 대상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0 100 200 400
N
주민센터
보건소
시장
경노당

2 어린이 교육 및 보육시설

-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는 만 6세의 어린이를 입학시켜 6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는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인 동시에 국민공통 교육기간에 해당한다.

- 유치원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은「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교육부 아래 관리되고 있다.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뉜다. 국공립유치원은 국・공립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곳으로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이 있다. 사립유치원은 주로 법인, 개인, 종교단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다.

- 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함께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아래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표 3-2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교

분류	어린이집	유치원
목적	보육+교육	교육
이용대상	만 0세~만 5세 영유아	만 3세~만 5세 영유아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육이 도입되어 유아공통과정으로 일원화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시설유형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 : 아동비율	만 1세 미만 : 교사1인 : 영아3명 만 2세 미만 : 교사1인 : 영아5명 만 3세 미만 : 교사1인 : 유아7명 만 4세 미만 : 교사1인 : 유아15명 만 4~5세 미만 : 교사1인 : 유아20명 장애아동 : 교사1인 : 장애아동3명	만 3세 아동 : 교사1인 : 아동22명 만 4세 아동 : 교사1인 : 아동27명 만 5세 아동 : 교사1인 : 아동30명 혼합연령아동 : 교사1인 : 아동26명 종일반아동 : 교사1인 : 아동23명 (시・도별 차이있음)
운영시간	기준시간 :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시간연장 : 오후 7시30분 이후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가능(지정어린이집)	반일반(9시~12시) 종일반 (8시간 이상) 연장반(3시간~5시간 가능)
보육료/교육비 (2014년 기준)	만 0세 월 394,000원 지원 만 1세 월 347,000원 지원 만 2세 월 286,000원 지원 만 3세~만 5세 월 220,000원 지원 부모부담금 시·도별 상이	만 3세~만 5세 학비 220,000원, 방과후 과정비 70,000원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금 외 부모부담금 평균 30~40만원 입학금 평균 약 20만원

자료 : 아이사랑교육포털, 교육과학기술부

21 초등학교

만 6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학교이다. 초등학교는 중곡동 4개소, 구의2동 2개소, 광장동 3개소가 있다.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상 초등학교는 총 9개소 중에 4개소가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표 3-3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초등학교(2014년)

학교명	대지면적 (단위 : ㎡) 연면적 (단위 : ㎡) 소재지	층수(지하/상) 학급수 학생수 (단위 : 명)	특징						인접공공공간*					현황사진
			운동장	강당, 체육	도서실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관공서	중고등학교	
용곡 초등학교	14,993 10,945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82	0 / 4 30 675	■	■	■					■	■	■	■	■	
용마 초등학교	13,280 9,7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13길 10	1/ 4 52 1,261	■		■		■		■			■			
중광 초등학교	5,617 7,4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59	1 / 4 17 309	■	■	■								■		
중마 초등학교	8,538 7,34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72길 43	1 /4 28 647	■		■				■						
광진 초등학교	8,021 11,84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0길 41	1 / 5 33 777	■	■	■	■			■				■		
동의 초등학교	11.563 7,2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11	0 / 5 39 944	■		■	■	■		■						
광남 초등학교	9,690 9,6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0길 35	1 / 4 50 1,412	■	■	■	■	■							■	
광장 초등학교	8,821 7,79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1길 27	0 / 4 18 345	■	■	■	■	■		■				■	■	
양진 초등학교	17,869 10,699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키힐로 32	1 / 5 53 1,558	■	■	■	■	■							■	

자료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http://www.sensd.go.kr)

* 초등학교는 초등학생이 도보로 5분정도의 거리인 200m를 인접공공공간으로 본다.

** 단지내 공원을 제외한 공원만을 표시한다.

*** 초등학생들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만을 표시한다.

초등학교

분석 대상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0 100 200 400
N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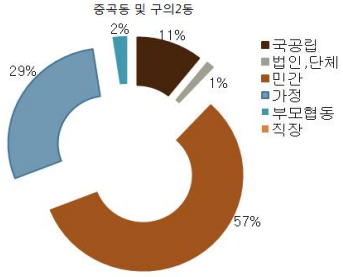
2.2 영 · 유아 교육 및 보육시설

- 대상지의 경우 영유아가 중곡동과 구의2동은 5,957명, 광장동은 2,366명이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중곡동과 구의2동의 경우 유치원 9개소,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 부모협동공동육아어린이집 2개소, 민간어린이집 44개소, 가정어린이집 15개소가 있다. 광장동은 유치원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3개소, 법인어린이집 1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가정어린이집 16개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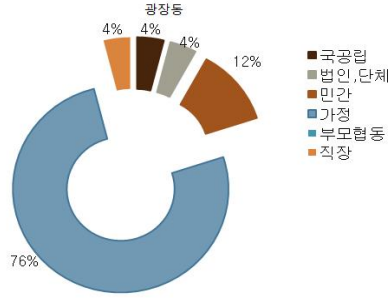
- 국공립어린이집은 중곡동의 경우 최근 국공립집 확충이 이루어져 8개소, 구의2동과 광장동은 각각 1개소 위치하고 있다. 정원 비율로는 중곡동의 경우 어린이집 전체비율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은 23.3%로 매우 높은 편이나 구의2동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은 동 전체 59명으로 어린이집 전체정원의 7%에 불과하다. 광장동은 그 비율이 18.7%이다. 국공립비율이 높은 선진국들(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의 보육서비스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지의 특이점으로는 부모협동조합형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2개소 있다는 점이다.
  광장동은 규모가 큰 유치원과 단지내 가정어린이집들이 많고 단지내 공원과 놀이터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 광장동은 단지내 대규모 유치원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을 통해 대부분의 교육과 보육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광장동은 교육의 질적 양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강북에서 손꼽히는 학군으로 시설면에서 규모가 큰 유치원이 많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광장동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대형 혹은 고급 유치원이 더욱 선호되고 발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원하는 어린이들의 유입이 늘어 광장동의 경우 점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구성비율이 높다.

표 3-4 중곡동 · 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 구성

중곡동 구의2동



광장동



ㅇ 0세에서 만 5세 미만 어린이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정원 49명 미만의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다.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유아법상 외부놀이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며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외부놀이터 시설을 갖추거나 100미터 미만의 거리에 위치한 공공놀이터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 중곡 · 구의2동의 대부분 어린이집은 외부 놀이터가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하루종일 일과를 보내는 어린이들은 외부활동이 제한된다.

ㅇ 유치원

표 3-5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유치원(2014년)

구분	행정동	유치원	위치
공립유치원	광장동	양진초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32
사립유치원	중곡동	예일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11길 41
		아이조아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7길 65
		미파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85
		동서울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답십리로 376
		금빛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07
		경하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72로 9
	구의2동	영화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4로 105
		슬기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96
		경원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4로 105
	광장동	청구이화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99
		보성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7길 17
		광남유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0길 40

자료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ㅇ 어린이집

표 3-6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 분류(2014년)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중곡동	8	0	36	18	1	0	60
구의2동	1	0	16	6	1	0	24
광장동	1	1	3	19	0	1	25
광진구전체	23	6	119	84	2	3	237

표 3-7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 정원(2014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중곡동	661	0	1774	367	36	0	2838
구의2동	59	0	668	65	49	0	841
광장동	99	20	103	258	0	49	529

자료 : 어린이집 정보공시 포털(http://info.childcare.go.kr/)

표 3-8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2014년)

구분	행정동	어린이집	위치
국공립	중곡동	중곡1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3길 27-14
		성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길 60
		수호천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7길 8
		상명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80길 30
		대원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3길 115
		진성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52
		중곡샛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458
		희망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37길 8
	구의2동	구의2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4길 91
	광장동	사랑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6길 8
법인	광장동	광장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6길 8
직장	광장동	워커힐행복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부모협동	중곡동	즐거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49-7
	구의2동	산들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50길 74
민간	중곡동	엄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89-1
		바른선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0길 58

표 계속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2014년)

구분	행정동	어린이집	위치
		예지원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4
		푸른숲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1길 23
		산위의마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길 37
		아름다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23길 34
		아이스쿨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3길 91-4
		아이와나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23길 4-4
		키즈랜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8길 56
		하늘숲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52
		한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17길 51
		홍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11길 40
		미예뜰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7길 69
		미파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85
		서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답십리로 78길 26
		솔로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7길 73
		아이원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50길 23
		엄마사랑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64
		예아랑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456
		참조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7-65
		늘평화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51길 17
		한국중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47
		사랑숲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9길 95-2
		새벽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53
		아이들세상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7길 60
		용곡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8길 8
		중곡희망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30길 17
		푸르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36길 15
		중곡4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49-8
		키즈용맹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48
		해피용마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길 5
	구의2동	구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53-1
		구의사임당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7길 8
		대일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27
		신예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길 16
		아이짐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7길 8
		아힘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6길 9

표 계속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2014년)

구분	행정동	어린이집	위치
		영화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05
		예랑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51길 11-12
		예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8길 43
		예일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7길 11
		평화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0길 18
		해오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50가길 41
		햇빛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8길 31
	광장동	예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37-17
		다예린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65
		파크빌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49 현대파크빌 단지내
가정	중곡동	궁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23
		꼬마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27길 33
		꼬마사랑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8길 14
		늘사랑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4길 18
		늘푸른몬테소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3길 115
		맘스맘용마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04
		사과나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8길 38
		신파랑새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9길 32
		에바다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44길 34
		예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5길 15
		중곡햇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1로 58
		초록마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59길 26
		파랑새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7길 4
		한국중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47
		해맑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5길 30
	구의2동	금색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50가길 12-3
		서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2길 20-10
		아이다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3길 50
		예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5길 7-6
		큰빛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23
		휴먼시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 아차산휴먼시아아파트단지내
	광장동	광장사임당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49 현대파크빌 단지내
		광장아이자람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03-23 청구아파트 단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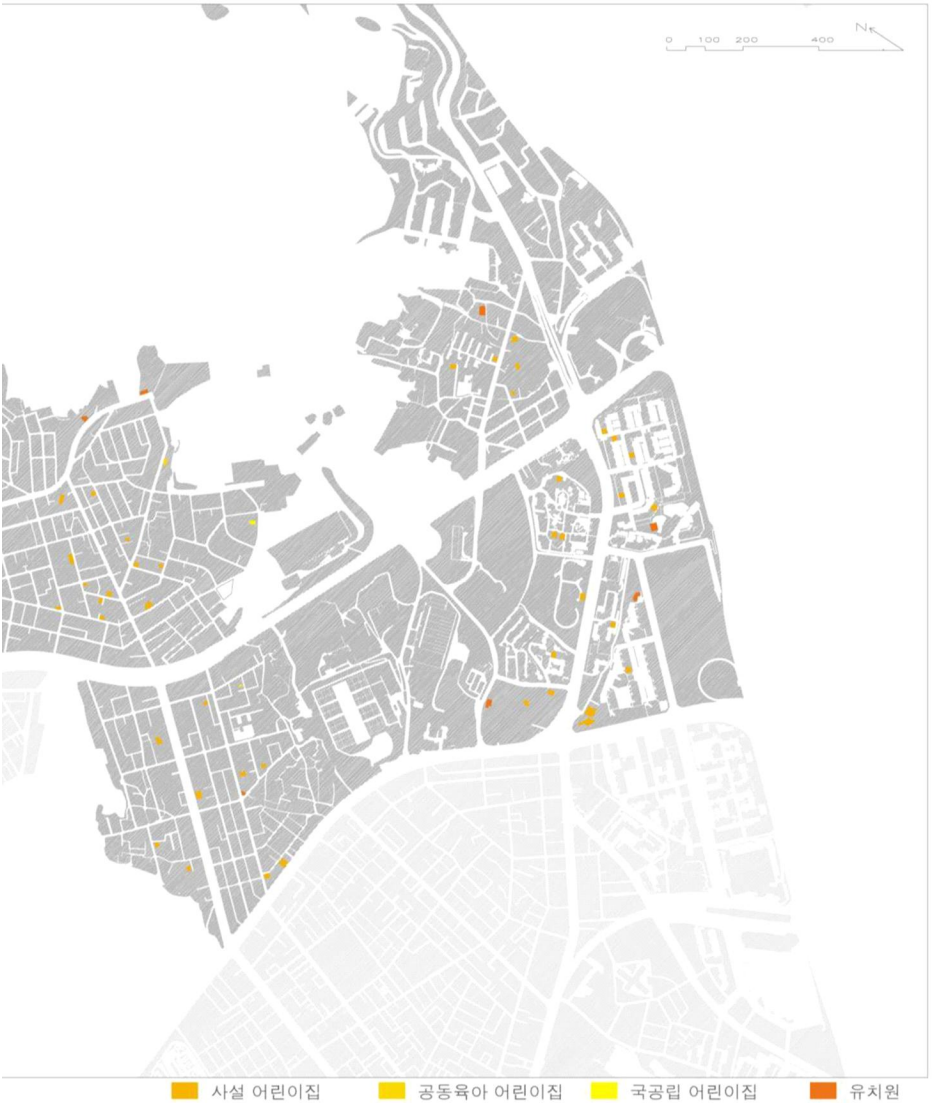
표 계속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집(2014년)

구분	행정동	어린이집	위치
		광장에코비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99 신동아파밀리에 단지내
		굿모닝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극동아파트 단지내
		극동예랑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극동아파트 단지내
		나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1나길 4
		샘터자연친화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03-23 청구아파트 단지내
		아이숲루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49 현대파크빌 단지내
		아이자람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635 현대 3단지 아파트 단지내
		야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극동아파트 단지내
		영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현대3단지 아파트 단지내
		예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37-17 광장힐스테이트 단지내
		윈스쿨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03 광장현대9차아파트 단지내
		참조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극동아파트 단지내
		파크빌티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49 현대파크빌 단지내
		향기나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5길 26-1

자료 : 광진구청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영유아 보육시설

분석 대상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0 100 200 400
N
사설 어린이집
공동육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3 공원 및 놀이터

3 1 생활권공원

- 중곡동 구의2동에 위치한 생활권 공원은 총 8개소이다. 광장동에는 총 2개의 생활권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곡1동과 광장동에 유휴지를 활용한 마을 마당이 각각 1개소 있다. 마을 마당을 제외한 생활권 공원 9개소 모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생활권 공원아래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실상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의 개념분류가 모호하며 소공원 개념 역시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광진구는 2014년 5월 당시 조사기준으로 근린공원 18개소, 어린이공원 18개소로 기록되어 있다(http://www.gwangjin.go.kr 기준). 그러나 2014년 10월 재확인 결과 이전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되었던 공원 중 자양동에 위치한 약초원 공원(면적 1,337㎡)을 제외한 17개의 근린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광진구내 어린이공원은 35개소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1,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지 내의 어린이공원은 대부분의 면적이 90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되며 구의2동 아차산 기슭에 위치한 산마루공원은 397㎡로 어린이공원 중 규모가 가장 작다.
- 광진구 용마산로33길 25(중곡3동) 일대의 중곡3동1마을공원은 광진구 공원 목록(http://www.gwangjin.go.kr)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공원은 2009년 167억 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주택 24가구를 매입하여 3,038㎡의 부지에 조성하였으며 지하 1,2층에 총 163면 주차장을, 지상에는 파고라와 의자, 지압보도,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나무와 기린초 등을 심어 쉼터를 만들었다.

- 대상지의 어린이공원 중 구돌공원, 산마루공원, 중곡공원, 평강공원, 해오름공원 등 어린이공원 5개소는 최근 상상어린이공원사업으로 재조성되었다. 즉 노후화된 놀이터 시설을 2008년 1월 27일 시행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으로 새로 설치하고 공원을 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하였다.

표 3-9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마을마당(2014년)

공원명	행정동 / 면적 (단위 : ㎡) / 소재지	특징					공원인접 공공공간								현황사진
		상상공원21	운동기구	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시설	파고라	주민센터	경로당	공영주차장	공공화장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유아교육	학교	커뮤니티시설	
중곡1동 마을마당	중곡동 64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48-29		■	■			■										
광장동 마을마당	광장동 478.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44-10					■	■										

자료 : 서울특별시 공원분야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 현장조사

21 상상어린이공원 :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가 아동 ·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만들기를 위해 낙후하고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의 어린이 공원(2009년 기준 총 1천 82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의견수렴회, 현장 워크숍 등을 통하여 실재로 이용하는 어린이와 주민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 감성을 키워주고 지역주민에게 커뮤니티 및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여 자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이 되도록 하였다.

표 3-10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공원(2014년)

공원명	행정동 면적 (단위 : ㎡) 소재지	특징						인접 공공공간[22]								현황사진
		상징조형물	운동기구	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시설	파고라	주민센터	경로당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유아교육	학교	커뮤니티시설	
중곡공원	중곡동 995.7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5길 10	■	■	■		■			■						■		
배나무터 공원	중곡동 97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가길 28		■	■				■		■	■						
해오름공원	중곡동 84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36길 71	■	■	■			■		■		■						
중곡3동 1마을공원	중곡동 3038.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3길 25		■	■		■	■			■	■			■			
구돌공원	구의동 78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2길 44	■	■	■	■	■		■				■		■	■		
온달공원	광장동 1,01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3길 15		■	■			■	■	■		■			■			
한마음공원	중곡동 89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3길 59		■	■		■			■					■	■		
긴고랑공원	중곡동 633.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45-3		■	■			■	■	■		■			■			
산마루공원	구의동 397.0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5길 14	■		■	■									■			

자료 : 서울특별시 공원분야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 현장조사

22 이 연구에서 인접공공공간의 기준은 공간에 면해 있거나 걸어서 2~3분 거리를 말하며, 어린이 공공시설에 대한 연구인만큼 영유아가 혹은 영유아와 함께 걸어서 2~3분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

표 3-11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체육공원(2014년)

공원명	행정동	특징						인접 공공공간								현황사진
	면적 (단위 : ㎡)	상상공원	운동기구	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시설	파고라	주민센터	경로당	공영주차장	공공화장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유아교육	학교	커뮤니티시설	
	소재지																
아차산 배수지공원	구의동		■			■	■			■	■	■					
	16,13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31																

자료 : 서울특별시 공원분야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 현장조사

- 역사공원

  대상지 내에는 광진구 광장동 384-8번지 외 21필지에 '역사공원'이 예정되어 있다. 37,444㎡ 규모로 예정[23]되어 있으나 아직 미시설 상태이다.

- 체육공원
- 체육공원은 아차산 배수지에 1개소 있으나 접근성이 낮다.

표 3-12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생태공원(2014년)

공원명	행정동	특징						공원인접 공공공간								현황사진
	면적 (단위 : ㎡)	상상공원	운동기구	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시설	파고라	주민센터	경로당	공영주차장	공공화장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유아교육	학교	커뮤니티시설	
	소재지																
아차산 생태공원	광장동		■			■	■			■	■	■			■		
	23,45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27																

자료 : 서울특별시 공원분야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 현장조사

- 생태공원

는 반경 100m를 기준으로 한다.

23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공원현황 참고

3 3 아파트 단지내 공원 및 놀이터

- 아파트는 일정규모의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을 확보하도록 법적 기준이 있어 단지내 휴식 및 놀이를 위한 공간들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특히, 최근 건설된 단지들은 보차 분리를 통해 단지내 차량이동이 없어 단지내 모든 휴식 및 공원, 놀이터 등의 공간이 보행로와 연계하여 계획되어 있다. 광장동의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의 놀이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놀이터들 근처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위치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표 3-13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아파트단지내 공원*(2014년)

아파트 단지명	행정동 / 입주일 / 세대수 / 공원수	특징					인접 공공공간**									현황사진
		운동기구	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시설	파고라	주민센터	경로당	상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영유아교육	학교	커뮤니티시설	
아차산 한라아파트	구의동 2009. 07 72세대 / 1개소		■	■		■								■		
아차산 휴먼시아	구의동 2011. 01 125세대 / 1개소	■	■					■	■			■	■		■	
워커힐 아파트	광장동 1978. 11 576세대 / 2개소	■	■						■							
극동1차	광장동 1985. 09 448세대 / 1개소		■						■		■		■		■	
삼성1차	광장동 1987. 12 165세대 / 1개소	■	■	■		■			■					■		

표 계속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아파트단지내 공원*(2014년)

아파트 단지명	행정동 / 입주일 / 세대수 / 공원수	특징					인접 공공공간									현황사진
		운동기구	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시설	파고라	주민센터	경로당	상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영유아교육	학교	커뮤니티시설	
삼성2차	광장동 1989. 02 195세대 / 0개소							■	■					■	■	
광장 극동2차	광장동 1989. 02 896세대 / 1개소		■	■		■		■	■		■		■		■	
광장 현대5단지	광장동 1989. 04 581세대 / 1개소		■	■		■			■					■	■	
광장 현대3단지	광장동 1990. 09 1056세대 / 2개소	■	■			■			■		■		■	■	■	
광장 현대8단지	광장동 1995. 03 537세대 / 2개소	■	■			■		■	■		■		■	■	■	
광나루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광장동 1996. 04 380세대 / 1개소		■			■			■						■	
청구아파트	광장동 1996. 07 654세대 / 2개소	■	■	■		■			■		■		■	■	■	
현대9단지	광장동 1999. 04 437세대 / 2개소		■					■	■				■			
광장 현대파크빌 10차	광장동 2000. 09 1170세대 / 5개소	■	■	■		■		■	■		■	■	■	■	■	

표 계속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아파트단지내 공원*(2014년)

아파트 단지명	행정동 / 입주일 / 세대수 / 공원수	특징					인접 공공공간**									현황사진
		운동기구	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시설	파고라	주민센터	경로당	상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영유아교육	학교	커뮤니티시설	
광장 금호 베스트빌	광장동 2001. 06 242세대 / 1개소		■			■			■							
광장 현대홈타운 11차	광장동 2006. 04 159세대 / 1개소							■	■					■	■	
광장 현대홈타운 12차	광장동 2006. 06 119세대 /	■	■			■		■	■						■	
광장 신동아 파밀리에	광장동 2007. 01 302세대 / 3개소	■	■										■		■	
광장 자이아파트	광장동 2008. 12 122세대 / 2개소		■					■	■		■				■	
광장 힐스테이트	광장동 2012. 03 435세대 / 2개소		■			■		■	■		■	■	■	■	■	
중곡아파트	중곡동 1976. 05 270세대 / 0개소												■	■		
현대 하이츠빌라	중곡동 1990. 01 72세대 / 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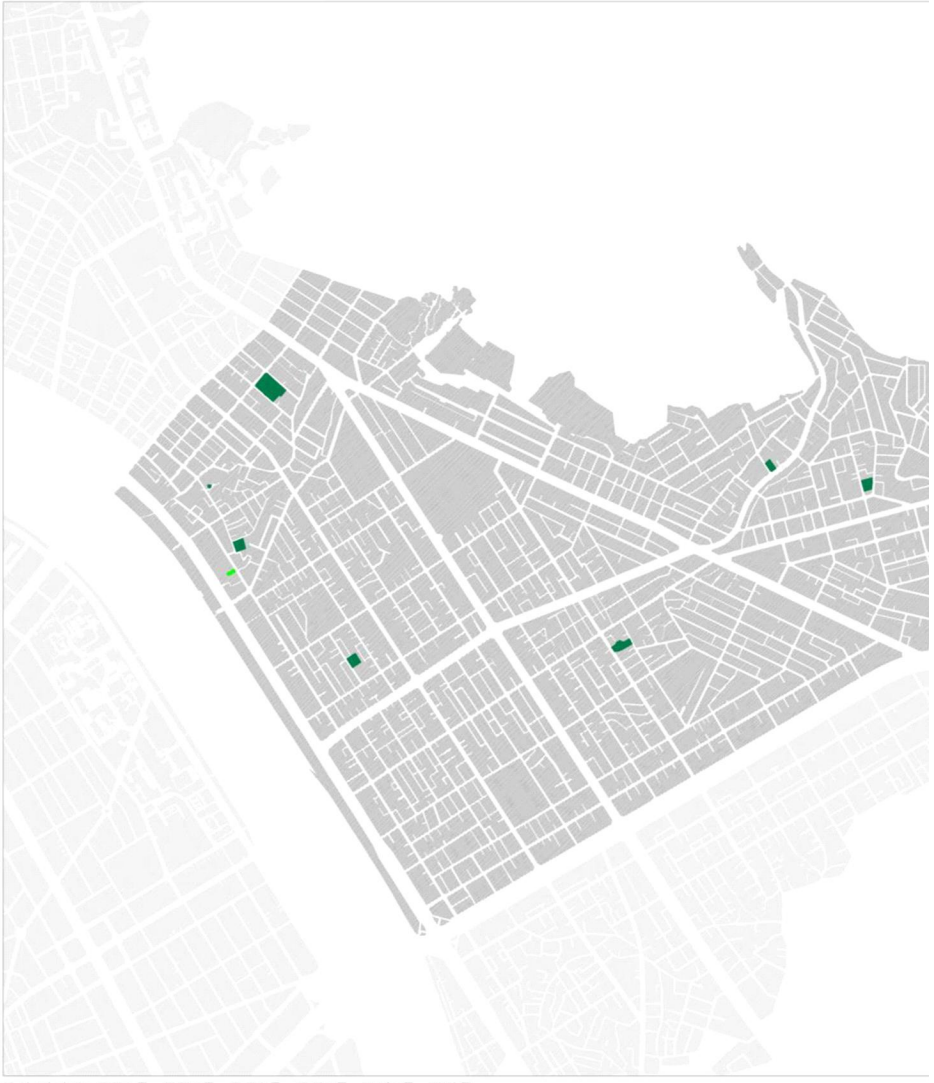
표 계속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아파트단지내 공원*(2014년)

아파트 단지명	행정동 / 입주일 / 세대수 / 공원수	특징					인접 공공공간**									현황사진
		운동기구	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시설	파고라	주민센터	경로당	상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영유아교육	학교	커뮤니티시설	
성원아파트	중곡동 1998. 04 91세대 / 1개소		■			■							■			
SK아파트	중곡동 1999. 11 182세대 /1개소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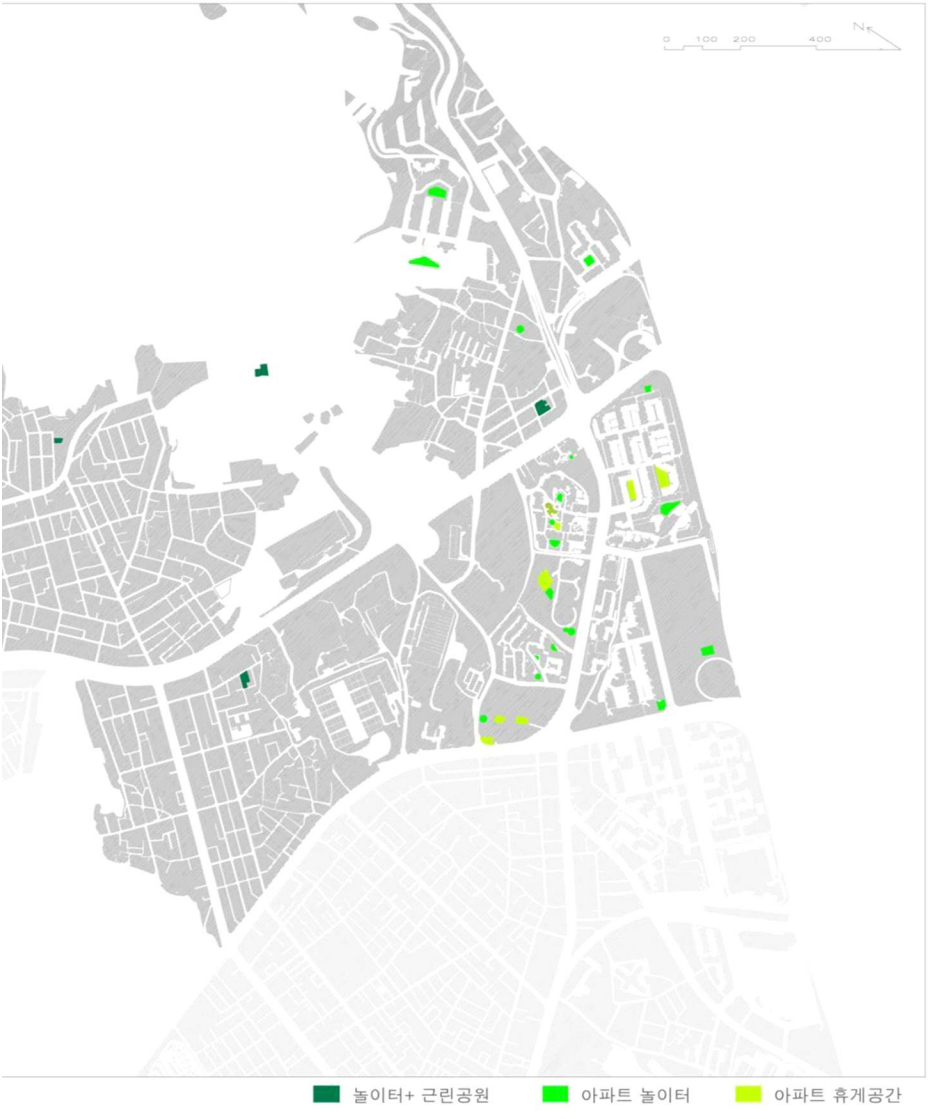
* 아파트는 50세대 이상 단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 아파트 단지내 공원의 경우 인접 공공공간은 단지내 공간들과 단지와 면한 공간들만을 의미한다.

놀이터 및 근린공원



분석 대상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0 100 200 400
N
놀이터+ 근린공원
아파트 놀이터
아파트 휴게공간

4 도서관

도서관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도서관, 공립 새마을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부 자치구는 새마을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광진구는 새마을자치회에서 새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공립새마을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을 구분한다.

4 1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광진 정보도서관과 중곡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 2개소가 있다. 2개소의 도서관 모두 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공공성을 지니며 성인 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이 분리되어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공간도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 도서대출이 가능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대상으로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곡체육문화센터 도서관은 지하철 7호선 지하철역에 가깝고 구의2동을 관통하여 지나는 광진03마을버스가 경유하고 있으며 체육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
광진 정보도서관은 광장동에 위치해 있으며 광진01마을버스 종점에 위치해 있으나 구의동과 중곡동에서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을 두가지 이상 이용해야 하며, 지하철5호선 광나루역에서 도보로 800미터 이상 걸어야 하는 위치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표 3-14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공공도서관(2014년)

도서관명	행정동	운영현황					운영시간				인접시설						현황사진
	면적 (단위 : ㎡)	부속기관	이용제한	도서대출	프로그램운영	어린이열람실	09:00~12:00	12:00~14:00	14:00~17:00	17:00~20:00	공원	영아보육시설	유아교육시설	학교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소재지																
중곡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중곡동 2,032.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33			■	■	■	■	■	■	■	■				■		
광진 정보도서관	광장동 도서관동 : 4,549.82 문 화 동 : 2,722.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90			■	■	■	■	■	■	■	■				■		

자료 :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wangjinlib.seoul.kr)

4 2 공립새마을도서관

통칭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되는 새마을도서관은 새마을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대부분 주민센터에 위치한다. 새마을도서관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대상지 내에서는 중곡3동과 중곡4동 주민센터의 도서관이 운영시간과 공간활용 등의 면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타의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은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시설과 운영면에서는 새마을문고 때(2007년 기준)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도서관은 주민센터와 결합하여 마을단위의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이점이 있으나 운영시간이 오후 2~5시로 매우 제한적이며 공간이 협소하여 어린이 혹은 어린이 중심의 가족 단위가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다.

중곡3동과 중곡4동을 제외한 광장동, 구의2동, 중곡1동의 새마을도서관은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40㎡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대상지 내에 어린이 열람실을 갖추고 어린이들이 가장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새마을도서관은 최근 북카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곡3동 북카페 그루터기'이다. 2013년 2월 6일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곡3동 주민센터 1층에 예전 보건분소로 사용되던 유휴공간 109㎡를 시비 3천1백5십만원, 구비 1천만원 등 총 4천1백5십만원을 들여 조성했다.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열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테이블과 의자 배치 등이 기존 도서관과 달리 카페형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와 성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곡4동은 2010년 10월 새롭게 청사를 열면서 1층에 새마을문고를 만들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위한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운영시간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lip.go.kr/sml/map/map_idx.jsp?ct1=1&ct2=6)에 따르면 모든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18:00시까지 운영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실제 답사를 통해 조사한 운영시간은 표 3-15와 같다

사진 3-5 중곡3동 북카페 그루터기

사진 3-6 중곡4동 새마을도서관

표 3-15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공립새마을 도서관(2014년)

도서관명	행정동 면적(㎡) 소재지	운영현황					운영시간				인접시설						현황사진
		부속기관	이용제한	도서대출	프로그램운영	어린이열람실	10:00~12:00	12:00~14:00	14:00~17:00	17:00~20:00	공원	영아보육시설	유아교육시설	학교	문화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중곡1동 새마을문고	중곡동 4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2길 49 주민센터내 1층																
중곡2동 새마을문고	중곡동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6 주민센터내 2층																
중곡3동 새마을문고 (북카페 그루터기)	중곡동 109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1 주민센터내 4층																
중곡4동 새마을문고	중곡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1 주민센터내 1층																
구의2동 새마을문고	구의2동 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36길 55 주민센터내 2층																
광장동 새마을문고	광장동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6 주민센터내 2층																

자료 : 광진구 교육포털(http://gwangjin.go.kr) 현장답사

43 사립 작은도서관

개인 혹은 기관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중곡동, 구의2동, 광장동에 총 5개소 있으며 정립회관 내에 아름드리 작은도서관과 현대파크빌 내에 파크빌 작은도서관 및 중곡교회 작은도서관, 중곡동 사랑의나무 작은도서관이 있다. 그러나 아름드리 작은도서관은 방문조사 결과(2014년 7월 기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파크빌 작은도서관은 광장동 현대파크빌 10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열람실만 운영하는 독서실로 이용되고 있고 입구에 도서관 간판도 달려있지 않아 일반인들의 이용이 어렵다. 종교시설에서 운영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으로는 중곡교회 내 작은도서관과 중곡동에 사랑의 나무 작은도서관, 구의2동에 성민다니엘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 부설인 특성 등으로 공공성을 가진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최근 아차산 아래 작은도서관 '놀자'가 마을살이 공간으로 마을사업을 통해 2014년 10월 25일 개관하였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활동지원 분야에 '마을살이 복합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모한 후, 활동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마을도서관 만들기 공개강좌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회의 등을 거쳐 마을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 올 3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공간지원 분야에 공모해 사업비 4천2백여만원의 공간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 후 자양로 50가길45(구의2동 26-1번지) 2층에 105㎡ 규모의 도서관 장소를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성금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임대하고 지원금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내부공사를 진행해,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었다. 도서관은 주중에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도서관 관련 정보는 서울도서관, 국가도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clip.go.kr/),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 libsta.go.kr/),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사이트(http://www.smalllibrary.org/)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등의 기본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각 사이트 간의 정보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도서관

분석 대상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0 100 200 400
N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부설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5 기타

문화체육시설은 인구대비 시설면적이 적으며 그 위치가 도보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공공시설로서 어린이의 공공적 접근성이 낮다. 대상지의 대부분은 문화・체육시설을 일상적 도보권 안에서 향유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3-13 외에도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과 구의야구공원 등의 시설이 있지만 이러한 시설들을 어린이가 도보로 이동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표 3-16 중곡 · 구의2동과 광장동 어린이 문화 · 체육시설(2014년)

시설명	행정동	위치 / 규모 / 주요시설	현황사진
중곡체육문화센터	중곡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33 지하 1층 / 지상 4층 대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광진구민체육센터	광장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14 지하 2층 / 지상 4층 수영장, 골프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대체육관, 조깅트랙, 문화교실, 유아스포츠단	
서울시립 청소년수련원 시골	광장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2 지하 1층 / 지상 4층 대극장, 소극장, 책놀이방, 강의실, 공방실, 연습실, 천체투영실 별찬, 천체과학교육실	

자료 : 광진구시설관리공단(http://www.gwangjin.or.kr) / 현장조사

체육시설

분석 대상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0 100 200 400
N
체육시설

6 소결

광장동과 중곡동・구의2동에는 총 10개의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대상지의 면적과 인구수에 비해 시설면적과 시설수가 모두 부족하다.

작은도서관은 등록된 도서관 수는 대상지안에 11곳 있으나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운영시간을 확보한 곳은 두 곳에 불과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설면적이 매우 부족하고 기존 시설은 도보로 접근이 어렵다.

아파트 단지는「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 복리 및 커뮤니티 시설의 공급이 의무화되고 있고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는 이러한 복리 및 커뮤니티 시설들이 중요한 시설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에는 현행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특별히 그 범위와 영역이 한정되지 않아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구역별로 여건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단독주택지는 주차 등의 도로여건이나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 어린이들은 기본적 안전과 이동성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들이나 양육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권 안에서 놀이, 문화, 체육 등의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Ⅳ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과 도시공간구조 분석

1 서울시 마을만들기와 공공공간
2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과 도시공간구조 분석
3 공공공간과 관계망

Ⅳ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과 도시공간구조 분석

1 서울시 마을만들기와 공공공간

마을만들기는 주체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24]할 수 있다. 자생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상과 결합시키면서 주민참여를 해결하는 방법이자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민간주도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 운동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행정정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주민참여가 도시계획의 한 방법으로 적용[25]되면서 이루어진 마을만들기는 '행정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과 행정이 서로 적절하게 각각의 영역을 주도하여 이루어진 마을만들기는 '민간+행정주도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 마을만들기 유형 분류

24 김은희・이영범(2013)의 글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을 '자생적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운동', '계획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이 연구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 주도형', '민간+행정 주도형', '행정주도형'으로 분류한다

25 김은희・이영범, 2013, 「도시의 마을만들기 동향과 쟁점」, 국토연구원, pp7~11

11 강동구 서원마을

그림 4-2 서원마을 전경

- 서원마을 개요
  - 위치 : 강동구 암사동 102-4번지 일대
  - 범위 : 면적 33,602㎡
  - 세대수 : 156세대 / 건물 : 64동 / 인구 : 345명
  -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 추진경위[26]
  - 1914 :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암사리로 시작
  - 1963 : 서울시 성동구 천호출장소 관할 암사동으로 편입
  - 1975 : 암사제방과 강변도로 조성(3년간)
  - 1979 :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현재의 마을형태 형성
  - 2007 : 점마을에서 서원마을로 개명
  - 2008. 11. 21 살기좋은 마을 시범사업 공모-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2010. 10 서울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26 서울 휴먼타운 서원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2010

- 2010. 8. 3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0. 11. 10 : 서울시 디자인 심의 완료
- 2010. 12. 28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완료
- 2011. 3. 15 : 공사착수
- 2011. 11. 29 : 서울시 최초 휴먼타운 사업준공
- 2012. 1. 9 : 과거흔적 남기기 사업 착수
- 2012. 2. 8 : 과거흔적 남기기 사업 완료

그림 4-3 서원마을 공공공간 배치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은 2009년 강북 인수동 능안골, 성북 성북동 선유골과 함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과 다르게 주민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설계이다. 주민의 역량과 참여를 중시하여, 주민에 의한 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주민간담회 및 주민협의체를 선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협의체와 주민 워크숍을 통해 마을의 현안문제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서원마을은 최초의 휴먼타운 조성지로 2011년 11월에 준공되었다. 휴먼타운은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서울시+강동구)에 의해 만

들어졌으며,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작은 커뮤니티 공간, 노인정, 개방형 담장, CCTV, 녹색주차장, 도로정비, 친환경 마을을 위한 그린존이 형성되었다. 건물 높이 제한과 스스로 가꾼 자연친화적 마당을 통해 마을 내에 다양한 공공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상적 생활에 풍부하고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되었다.

그림 4-4 장수마을 전경

12 성북구 장수마을

- ㅇ 장수마을 개요
- 위치 :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 범위 : 면적 약 33,000㎡
- 세대수 : 299세대(65세 이상 세대주 - 103세대)
- 건물 : 167동(등재무허가 32동, 공가13동 포함)
- 인구 : 611명(남자 324명, 여자 287명)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호구역

- ㅇ 추진경위
- 1998.10. 29 : 1998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고시
- 2004. 06. 25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 2012. 03 : 서울시 지역특성화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선정(시・구)

- 2012. 05 : 장수마을 역사・문화 보전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착수(서울시)
- 2013.02~03 : 재개발예정구역 해제동의서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의견 조사서 징구
- 2013. 05. 23 : 장수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구)
- 2013. 06. 0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3. 06. 20 :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결정
- 2013. 07. 23 :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개최
- 2013. 08. 20 :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 2013. 09. 05 : 공공시설 정비기반공사 착공
- 2013. 09. 30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013. 12. 05 : 공공시설 정비기반공사 준공

그림 4-5 장수마을 공공공간 배치

장수마을은 과거의 골목풍경 등 서울의 근대적 서민주거지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을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릉지 및 문화재 인접(서울한양도성과 삼군부 총무당)에 의한 앙각적용, 북동측 급경사면 때문에 평균 3~4층으로 층수가 제한되어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2007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수마을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시민단체는 주민협의체 조직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집수리, 골목디자인, 텃밭조성 등 지속적인 주민교육 프로그램(뚝딱뚝딱 마을학교) 운영, 마을기업(동네목수)을 통한 일자리 제공,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소식지 발행, 벼룩시장 운영 등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3월 서울시 지역특성화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6월에 장수마을 역사・문화보전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5월에는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고 주민참여형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일상적 삶의 공간들을 유지하고 거점공간들을 형성해가면서 기존 마을 구조를 풍부하게 하도록 주거 및 골목을 개선하여 마을 공간구조의 관계를 만들었다.

장수마을은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사람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마을공간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이 서로 균형을 맞추며 진행되었다. 장수마을은 다양한 마을의 공공공간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동선안에 존재하고 이 공간들의 관계와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관계가 도시속 마을에서의 일상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3 마포구 성미산마을

그림 4-6 성미산마을 전경

ㅇ 성미산마을 개요

- 위치 : 서울 성산동 성미산 일대
- 범위 :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연남동 일대 반경 1km 내외
- 세대수 : 약 500~700가구 / 인구 : 약 1,000~1,500명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추진경위

- 1994. 09 : 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 개원
- 1995 : '날으는 어린이집' 개원
  (2005년 또바기어린이집과 성미산어린이집으로 분화)
- 1996 : '도토리 방과후' 시작
- 1999 : 골목축제 시작
- 2000. 07 :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설립
- 2001. 05 : 성미산 마을축제 시작
- 2002. 05 : 친환경 유기농 반찬가게 '동네부엌' 오픈
- 2002. 08 : 두레생협 부설 꿈터 택견
- 2002. 09 : 참나무어린이집 개원
- 2004. 09 : 성미산 학교 개교
- 2004. 10 : 작은나무카페 오픈
- 2005 : 마을금융기관 '성미산대동계' 설립
- 2005 : 마포희망나눔
- 2005. 09 : 공동체라디오 마포FM 첫 방송
- 2007. 12 :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 인가
- 2007. 12 : 바느질공방 사업장 '한땀두레' 설립
- 2008 : 되살림두레로 전환
- 2009. 02 : 성미산 마을극장 개관
- 2009. 06 : 성미산 공방 오픈

- 2010. 04 : 친환경 마을식당 '성미산 밥상' 개업
- 2010. 09 : 마을공동주택 '소행주' 착공
- 2011. 03 : 성미산 동네금고 설립
- 2011 : 동네책방 '개똥이네 책놀이터' 오픈
- 2011. 03 : 동네금고 설립
- 2012. 06 : 마포의료생활협동조합

그림 4-7 성미산마을 공공공간배치

성미산 마을은 '우리어린이집'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점들과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가면서 형성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이다.

성미산마을은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표본으로 여겨질만큼 공동체적 관계망이 잘 짜여진 곳이지만, 이곳의 관계망이 구체화된 것은 마을축제와 성미산지키기운동을 통해서이다. 이후 마을의 확장적 전개 과정에서도 의식적 목표와 플랜을 미리 가지고서 이를 실행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필요를 느끼고 해보면 좋겠다고 여긴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실행한 각각의 독립적이며 다양한 프로젝트가 모여서 마을을 형성[27]하였다.

성미산마을은 주로 대중교통을 통해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많은 마을 공간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스스로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필요와 실행의 욕구를 가진 주민들의 독립적인 행위들의 총합으로서 마을공간들이 생성되고 이들이 축적되어 마을이 형성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순수하게 민간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성격의 공간들을 거점공간으로 형성해가며 이러한 필요와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간을 통해 관계 맺음으로써 마을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4 소결

마을만들기는 특정 주체의 의식적 활동이란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 다양한 필요와 실행의 욕구를 가진 주민들의 독립적인 행위 총합으로서 '마을의 형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실체(상, 규모, 범위, 방향 등)를 전제하고 그 내용을 구성해 나간다기보다 개인이, 주민이 자기 필요와 욕구를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각기 풀어가는 '마을살이'의 과정으로 설명[28]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의 커뮤니티[29]를 형성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사람들과 다양한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마을만들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공동체를 하나로 접속시키는 것

27 유창복, 2009,「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p147

28 유창복, 2009,「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p147

29 커뮤니티 : 특정지역을 단위로 지역적 정체성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진 주민들과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결합해서 전체 사회의 권익을 고려하며 지역사회의 권익을 만들어 가는 개방적이면서도 공익적인 지역사회 (참고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내 커뮤니티센터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건설교통부. 2007)

은 공유된 언어보다 공유된 하나의 유무형 공간이다. 공간을 가지지 않은 모임은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촘촘하고 중첩되는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30] 공간은 하나의 사회적 산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공통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놓인다. 그러므로 마을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공간의 형성은 관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과 도시공간구조 분석

2 1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의 배치

마을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는 장소와 거주지를 기반으로 공동체 영토가 갖고 있는 잠재적 차원을 보여준다. 마을은 생활공간이라는 일차적인 특징이 있긴 하지만, 생활 자체가 차이 나는 사이공간에 의해 이루어지며, 집단의 관계망의 구조[31]에 따른다. 영토는 거주지이지만, 마을은 풀뿌리가 땅 밑에서 얽히듯이 생활연관을 복잡한 그물망으로 만들면서 행정구역과 같이 규격화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과 사람들의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사이공간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마을의 범위와 함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도시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들이 어떻게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단위 공공공간은 시설수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적인 확충 외에도 도시안의 기타 시설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공공공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양적인 확충이 필요할 뿐 아니라 도시

30 마거릿 콘, 장문석 역, 2013,『래디컬 스페이스』, 삼천리

31 위성남 외, 2012,「마을하기, 성미산마을의 역사와 생각」, 국토연구원, p251

내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커뮤니티형성을 위해 공공공간을 도시 안에서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공간을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 내의 입지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도시 내의 다른 시설과의 관계와 연결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형태의 공공공간을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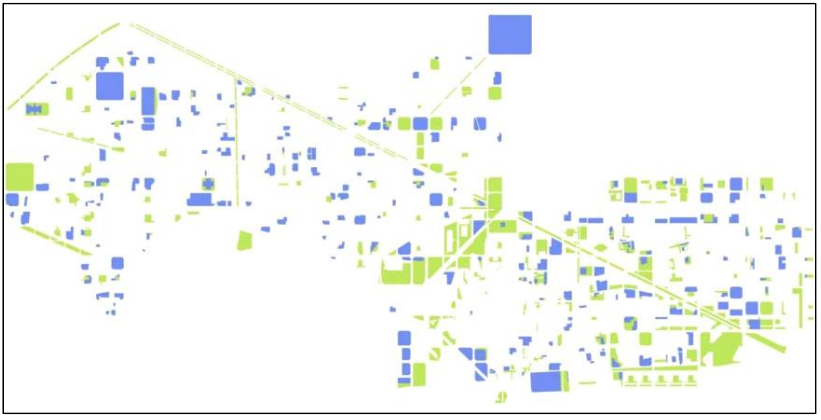


그림 4-8 바르셀로나 도시 내 공공공간
출처 : 『Equipamientos. La ordenación de los conjuntos dotacionales. Barcelona 12 ejemplos』, 2011, Barcelona

2 2 도시 주요시설 + 도서관 +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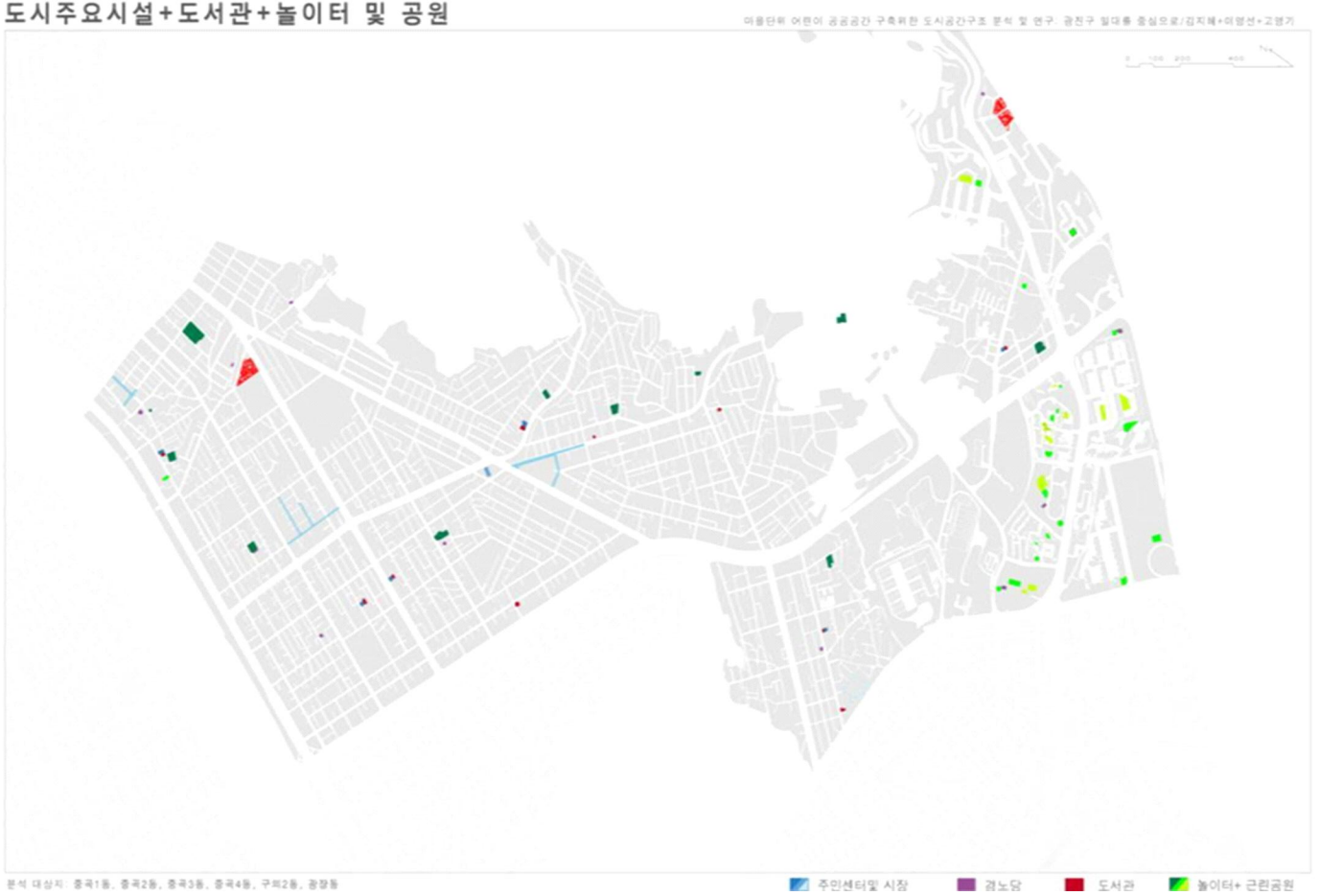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어린이 공공공간의 대표적 유형으로 설정한 공원 및 놀이터, 도서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도시구성원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주거지 내에서 가장 오랜시간을 보내는 인구계층은 40, 50대 여성[32], 노인 등이며 이들은 평일주간생활의 인구로 시장, 주민센터, 보

32 성은영 · 임강륜, 2011,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19

건소, 경로당 등의 주 이용자이다.
공원 및 놀이터는 실제로 노인이용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놀이터의 파고라나 정자 아래에서 휴식을 하거나 교류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곡공원, 온달공원은 놀이터 내부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파고라가 경로당 옆에 위치하여 외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해오름공원, 한마음공원, 긴고랑공원 등은 경로당과 인접하여 있다.
중곡4동과 같이 최근 새로 지어진 주민센터는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카페나 주민을 위한 강연장, 교육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민원을 위해서뿐 아니라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의 문화교실 , 강연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으며 연령대도 다양한 편이다.

중곡동 구의2동 일대는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이 없으며 재래시장은 중곡제일시장, 신성시장, 구의시장이 있고, 그외 골목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중곡 제일시장과 신성시장은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대상지 일대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성시장은 중곡4동 주민센터와 작은도서관(200m) 및 긴고랑공원(300m)과 가까이에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은행과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밀집하여 위치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중곡제일시장은 중곡공원(200m)과도 가깝고 중곡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광진구보건지소는 신성시장 맞은편인 중곡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3층에는 광진구 치매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도시주요시설+도서관+놀이터 및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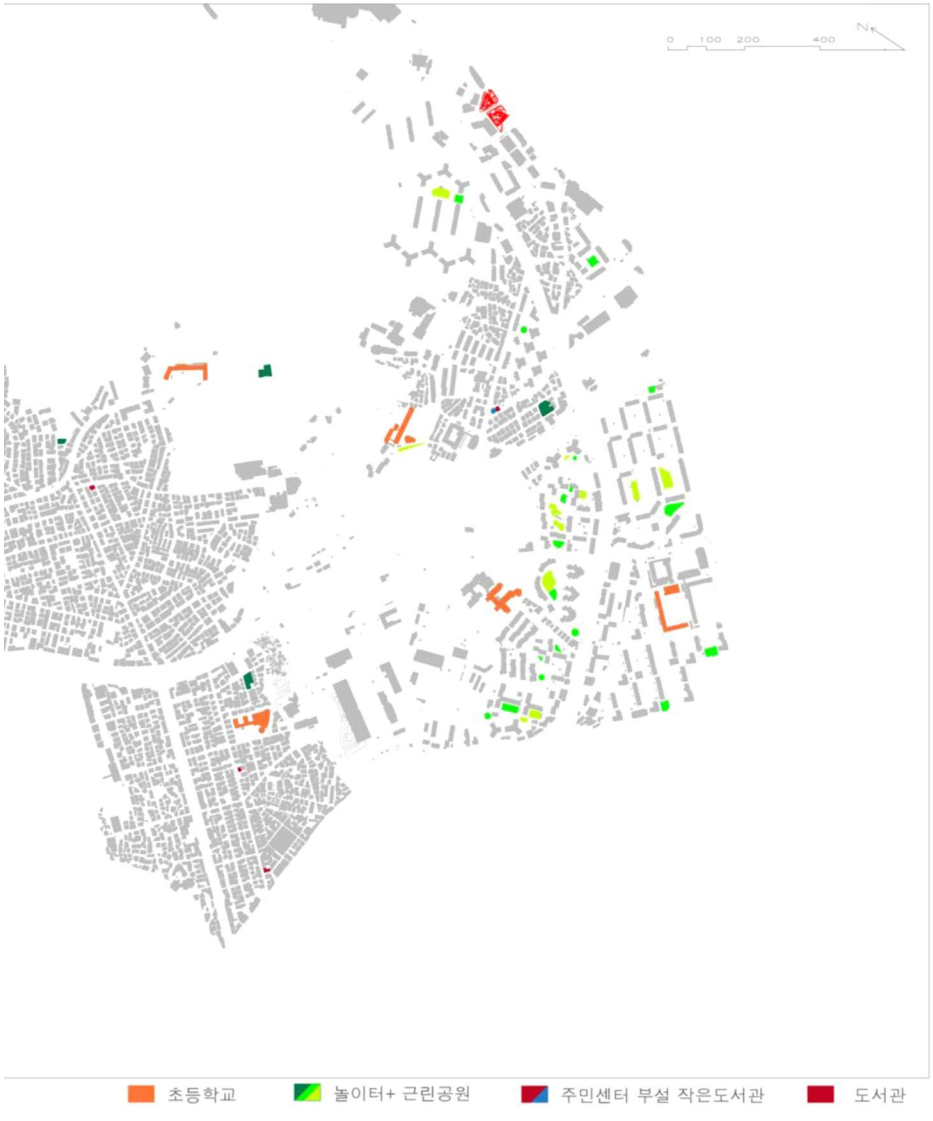
23 초등학교 + 도서관 + 공원

대상지의 초등학교는 중곡동 4개소, 구의동 2개소, 광장동에 3개소 등 총 9개이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놀이터 및 공원, 혹은 도서관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차선 이상의 도로를 건너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놀이터 및 공원과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광초등학교는 중곡체육문화도서관(400m), 중마초등학교는 중곡공원(150m)과 배나무터 공원(450m), 중곡3동 새마을도서관 북카페(450m)가 가까이에 있다. 용마초등학교는 한마음공원(230m)과 사설 작은도서관(180m)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의초등학교나 용곡초등학교는 아차산 기슭에 위치해 자연환경과 인접하고 있으나 마을내 다른 공공공간들과의 거리가 멀다. 광진초등학교는 구돌공원(300m)과 구의2동 새마을도서관(150m)이 인접하고 있다. 광장초등학교는 평강공원과 면하고 광장동 주민센터 새마을도서관(320m)이 있다. 양진초등학교와 광남초등학교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어린이 공공공간은 없으나 어린이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볼 때 아파트 단지내 공간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을 제외하고 도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은 거의 없다. 사설 학원외에 어린이들이 방과후 학습을 보충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은 부족한 편이다. 초등학생은 놀이터가 있는 근린공원과 함께 체육시설이나 작은 도서관 등의 요구가 높은 편이나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무하며 주민센터부설 새마을도서관은 협소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다.
학교를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라 어린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공공공간이라는 세부적인 관점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인식하고 마을내 다른 어린이 공간들과의 관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도서관+놀이터 및 공원

분석 대상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0 100 200 400
N
초등학교
놀이터+ 근린공원
주민센터 부설 작은도서관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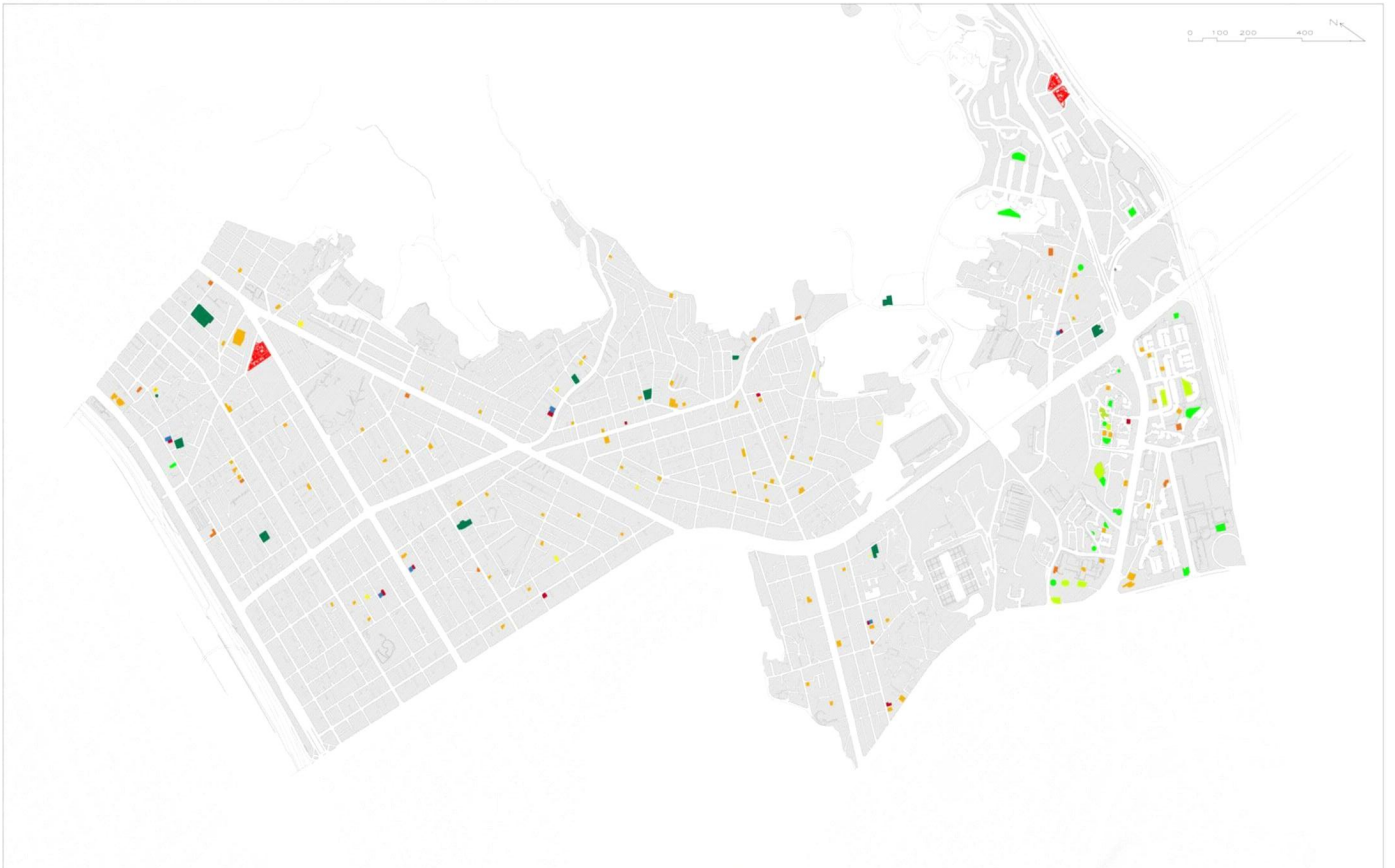
24 영유아 보육시설 + 교통 + 도서관 + 공원

중곡동과 구의동의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84%에 달하고 있다(국・공립 9, 부모협동 2, 민간 44, 가정 15). 이들 대부분은 정원 20명 안팎의 소규모 어린이집이며 부모협동 공동육아어린이집 2개소를 제외하고는 민간 어린이집 대부분이 옥외놀이터시설이 없어 도시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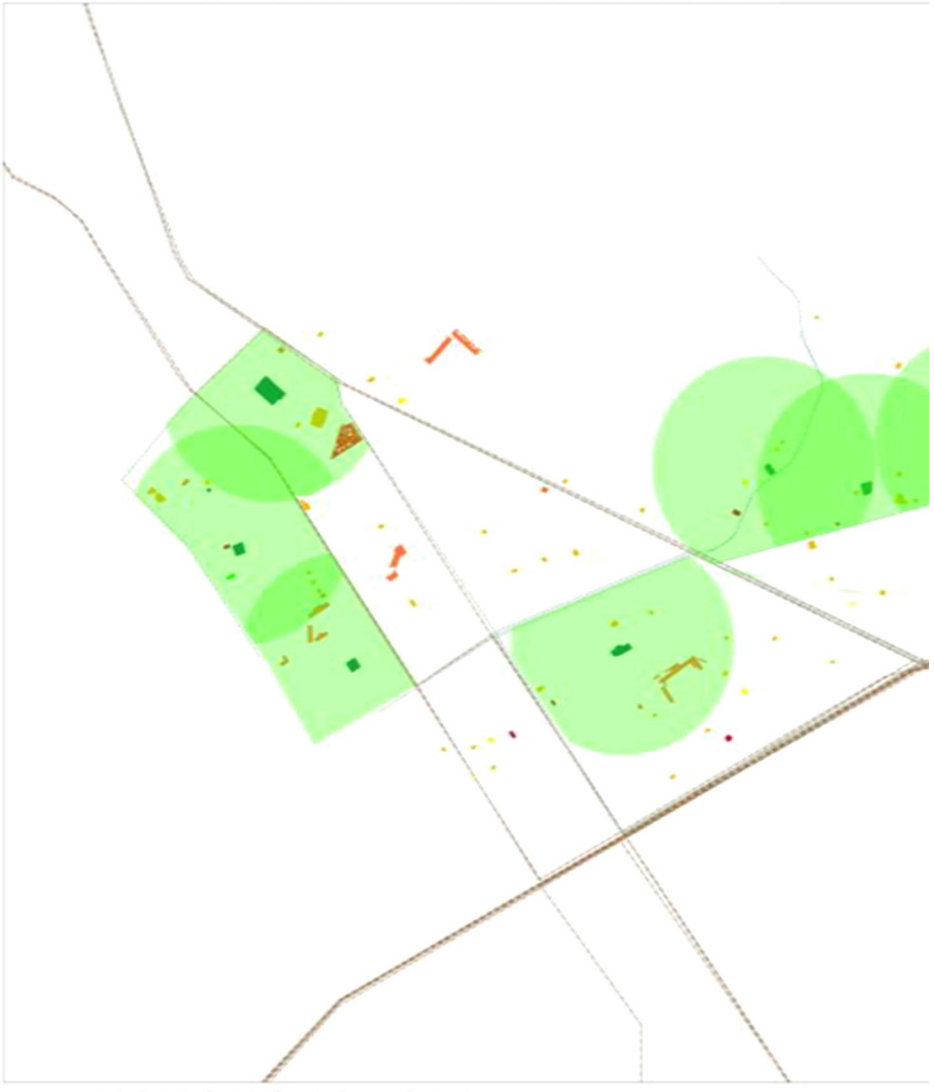
대상지 일대는 아차산 생태공원과 어린이 대공원 놀이터 등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아차산 생태공원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대공원은 왕복10차선 천호대로를 건너야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일상적 야외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차선 이상의 차로를 건너지 않고 100미터 이내에 놀이터 및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그 수가 적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들이 야외로 이동할 때 보통 어린이집교사 한 명당 최대 4~8명을 인솔하여 이동하며 이면도로는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들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이유로 만5세 이하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은 제한된다.

지도위에 표시된 원형의 면적은 어린이들의 이동을 고려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300미터의 반경을, 그리고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반경을 그려본 결과이다. 대상지의 60% 이상이 이 반경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도서관+놀이터 및 공원



교통+영유아보육시설 +도서관+놀이터및 공원



분석 대상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0 100 200 400 m
영유아 보육시설
초등학교
도서관
놀이터+ 근린공원

25 소결

공공공간은 입지와 접근성과 계획적 측면에서 공간적 근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와 같은 약자들이 물리적, 심리적 장애 요인 없이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광장동의 아파트 단지는 공원이나 놀이터, 혹은 체육시설 등의 인접 공공공간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 중곡동이나 구의2동에는 공간들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채 분포하고 있어 아이들이 교육 및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일상적 동선안에 다른 시설들이 잘 관계 맺지 못하고 있다.

공공공간들은 반드시 도로나 교통 혹은 다른 공공공간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며 각각의 공공공간이 관계망을 가지는 하나의 구조를 마을로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이나 공간들 사이의 관계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평성 있게 어디서나 일정정도의 도시적 환경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인구대비 수치적인 통계로 다양한 공공시설을 공급했던 도시의 정책은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향유되고 도시적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로나 교통 혹은 지리적 도시적 구조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공공공간과 관계망

- 공공공간의 관계망

  공공공간들은 도보접근성이 좋을수록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향유도가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공공공간들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양육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인접해서 배치하면 서로 다른 공간들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세대에게 풍부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관계망을 고려하여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도시중심공간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단독주택지 정비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세대 및 프로그램 복합화 및 관계망형성 사례

  바르셀로나는 최근 도시 공공공간을 배치하는 데 있어 그림 4-5에서 보는 것처럼 몇 가지의 공공공간이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거나,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세대들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공공공간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배치한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십여년간 도서관, 공원 등 부족한 도시 공공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바르셀로나는 세르다 도시계획안을 기본으로 1859년 이후부터 133x133미터 격자의 도시조직을 기본으로 도시를 성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공공의 개입 없이 급속한 도시 개발을 하면서 기존 도시계획안에는 포함되었던 도시 공공공간, 광장, 생활중심시설 등이 누락되었고, 바르셀로나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채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바르셀로나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생활중심시설 확충에 집중하게 되었다.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공공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광장과 시장, 어린이집, 도서관, 학교 등을 한 장소에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중심시설 복합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마

다 지역적 특성과 대지면적 등을 고려하려 구성이 각각 달라졌다. 그 중 urgell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 어린이집, 강당 등 실내 프로그램과 실외 어린이 놀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fort pienc 프로젝트는 대상지가 바르셀로나 북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장, 시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이 광장을 향해 있으며 그외 노인주거시설과 학생기숙사, 중고등학교까지 함께 구성되었다. 바르셀로나는 이러한 프로젝트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 양질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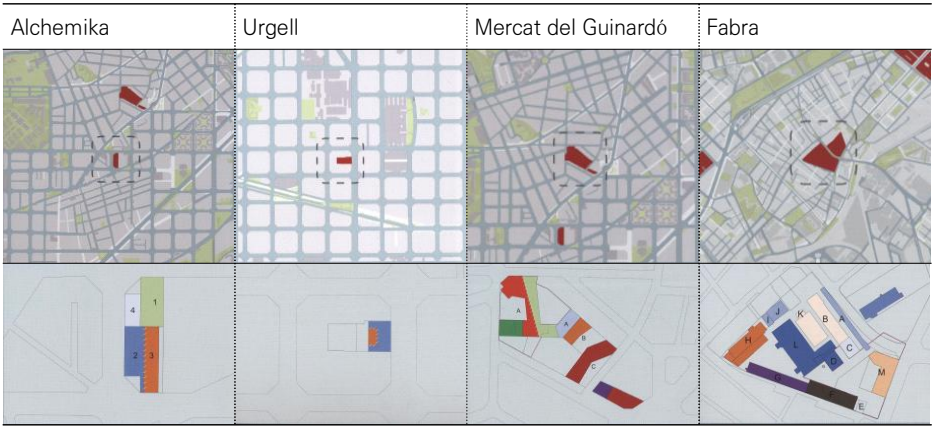


그림 4-9 바르셀로나 도시 공공건축 사례

출처 : 『Equipamientos. La ordenación de los conjuntos dotacionales. Barcelona 12 ejemplos』, 2011, Barcelona

3.1 공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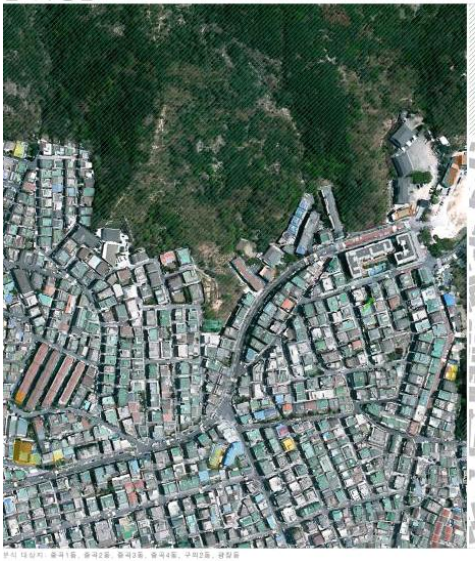
- 배나무터공원은 중곡3동 주민센터와 인접하여 있으며 주민센터 내 1층에 위치한 북카페와 연계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공원은 주민센터와 인접하여 공영주차장이 위치하여 있다. 어린이, 노약자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반경 300m를 기준으로 하여 경로당, 중마초등학교와 8개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시설, 중곡체육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그리고 면곡시장까지 모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인접한 공공공간들을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일상적 동선들을 만들면서 관계망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마을의 범위를 형성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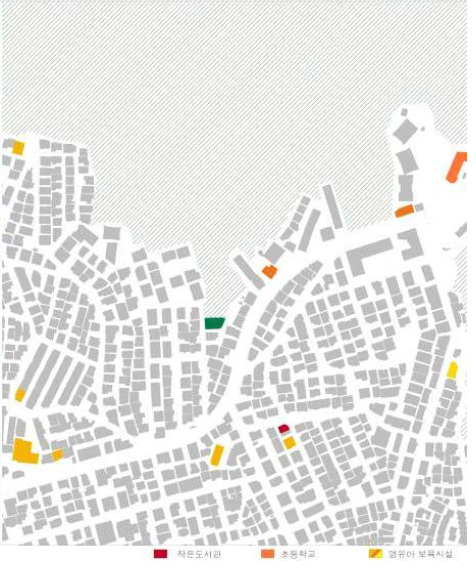
- 산마루공원은 아차산에 면해 있으면서 주택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공공공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관계성도 떨어진다. 이 공원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이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 각 공공공간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공공공간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배나무터공원은 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인접 면곡시장과 연계하는 이면도로환경을 개선하여 경로당, 시장, 놀이터, 도서관 등이 연계되는 동네의 중심을 형성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나무터공원

산마루공원





3.2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 관계망

- 용마초등학교는 중곡2동 주거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용마초등학교는 한마음공원까지 230미터, 작은도서관까지 180미터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초등학교의 입구는 천호대로 117길과 113길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천호대로 113길은 보행로가 없는 일방통행로이고 117길은 폭 1.2미터의 보행로가 있는 일방통행 일차선 도로이다. 용마초등학교 주변의 근린상가는 주로 분식점, 세탁소, 부동산, 마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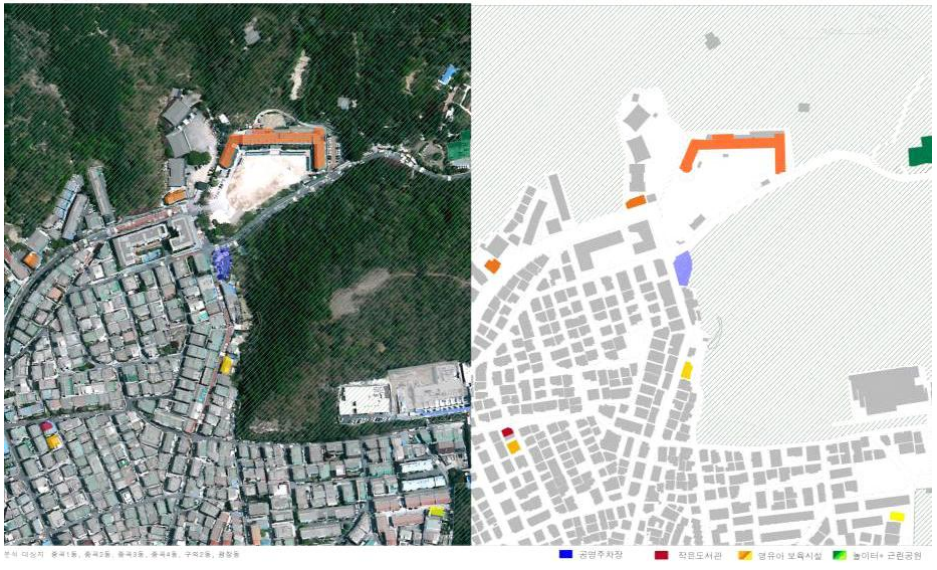
- 그에 비해 동의초등학교는 아차산에 면하고 있어 자연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인접 300미터 근방에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없다. 학교도 경사지 위쪽에 있어 마을 내 일상생활의 거점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용마초등학교에는 이면도로들에 대한 차량제한 등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차량제한 도로를 학교주변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도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공원이나 도서관 등 인접 공공공간과 초등학교를 연결한 도로를 중심으로 공간들 사이의 관계망을 만들어 차량을 제한하고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과 학교주변의 이면도로와 주변 도로의 차량 흐름을 분리하고 해당 블록 전체의 차량과 보행 동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용마초등학교

동의초등학교



3 3 아파트 단지내 공공공간 관계망

- 광장동 아파트단지 중 현대 파크빌 10차는 1,170세대 1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에 입주한 광장 현대 3단지(세대수 1,056세대, 10동)와 함께 광장동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이 단지는 남북방향이 약 215m, 동서방향은 약 200m에 달하는 규모이다. 입주는 2000년 9월에 이루어졌으며 24평형 372가구, 33평형 798가구로 비교적 소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내부에 놀이터, 체육시설, 보행로, 휴식공간 등이 조경과 어우러지게 구성되어 있다(이 단지는 2000년 제 9회 서울시 조경상 금상을 수상했다).

- 단지입구에 생활편의 시설과 상가가 위치해 있으며 관리동에 경로당과 학습실이 입지해 있다. 놀이터는 총 3개소 있으며 체육시설은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중앙광장 주변에는 별도의 유아용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행로와 공원들로 연결되어 있다. 차량동선은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로 유도되며 지상 외부공간의 대부분은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보행전용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럴 경우 각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보행로로 관계망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관계망 안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공간들 사이의 새로운 공간들을 생성해갈 수 있다.

광장동 아파트단지 (현대파크빌10차)

3 4 소결

어린이공원은 양육자나 가족들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린이 공공공간과 복합적으로 배치하거나, 다른 세대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어린이 공공공간을 추가 설치한다면 조금 더 풍부한 도시적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공간들 사이의 관계는 도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면도로를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공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면도로의 차량과 보행 관계를 정리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마을의 중심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연구와 제안 및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분석 및 연구 : 광진구 일대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지 :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정유미 보육시장
초등학교
주민센터및 시장
경노당
도서관
놀이터 + 근린공원

Ⅵ 결론

1 연구의 성과
2 어린이 공공공간 공급 및 관리방법 제안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V 결론

1 연구의 성과

ㅇ 어린이 공공공간 관련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를 통한 확인

- 이 연구에서 조사한 공원 및 놀이터와 도서관, 도시주요시설 관련 자료는 기관별 자료가 상이하거나 최근 현황이 기록되지 않은 곳이 많아 대상지의 2014년 현황을 답사 및 확인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ㅇ 어린이 중심의 도시분석

- 도시계획은 다양한 세대를 배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도시계획은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어린이들은 교육, 놀이, 문화체육활동 등 대부분의 생활을 마을 안에서 지내는 일상적 동선 안에서 해결하게 되며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접근성과 복잡한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내 공공공간은 이러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공공공간 접근성은 직선거리뿐 아니라 이면도로나 인도의 폭, 이면도로 주차 및 안전 문제 등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ㅇ 마을공동체와 어린이 공공공간

- 마을공동체는 아이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공공공간은 단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충 및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효율성 형평성뿐 아니라 관계성을 고려한 공공공간 계획 제안

-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공간을 계획할 때에는 인구구성과 도

로와 교통 등의 특성, 자연적 혹은 지형적 환경의 특성, 그리고 시설들 사이의 네트워크나 인접 시설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공공공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결합한 새로운 공공공간의 유형을 제안할 수 있다

2 어린이 공공공간 공급 및 관리방법 제안

2 1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기준

- 공공성
  - 단독주택지나 아파트 등 거주형태와 관계없이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도시내 필요시설 및 공간들은 공공이 책임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어린이는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없는 사회의 약자이므로 특정한 공동체나 모임에 속하지 않아도 다양한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보다 공공성이 강조된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림 5-1 도시재생방안으로서의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

- 어린이들은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므로, 어린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이용에 제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ㅇ 어린이 특성

- 다양한 연령대별로 어린이 행동특성을 고려한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는 그 움직임의 특성상 기거나 눕거나 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 필요하다.
- 연령대별 이동가능거리와 보행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차량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충분한 실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 공간과 실외공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요구와 특성들을 반영하여 도서관, 공원 및 체육센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양육자 배려

- 어린이를 동반하는 양육자도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육자가 어린이들과 함께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
- 어린이 공공공간은 세대 간, 주민 간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성격을 가지도록 다양한 세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ㅇ 관계성

- 어린이들의 연령별로 필요한 공간, 연령별 거점공간, 공간활용 특성, 내포한 프로그램들의 연계성 등에 따라 서로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
- 어린이 공공공간은 주거지내의 도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양한 공간 사이 보행로 등의 연결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마을은 마을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어린이 공공공간들은 어린이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활용하거나 마을 공동체 기반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내 다양한 공간과 관계성을 구축해야 한다.

2.2 단독주택지내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전략

- 공공공간 양적 확충 : 공원 및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공간들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공공공간의 신축뿐 아니라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이나 소규모의 마을단위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존공간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림 5-2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기준

- 공공공간 질적 개선 : 기존 주민센터의 새마을도서관을 활용하여 공간의 시설 및 운영체계를 보완하면 더욱 공공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마을 중심도서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시설들의 시설적 보안 혹은 운영체계의 보완을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접근성 확보 : 기존에 있는 다양한 공공공간 혹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그리고 인적인 인프라가 있다. 이러한 공간과 인적 인프라들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보다 작은 커뮤티니 단위를 벗어나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확장된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다. 이면도로의 차량제한 등 보행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함으로써 직선거리 중심이 아니라 보행 위주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

- 네트워크 구축 : 도시내 공공공간은 인접 공공공간 사이의 관계망을 통해 세대별 동선과 프로그램이 중첩되면서 더 풍부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이 연구는 다양한 지리적, 도시적 요소들과 공공공간들이 어떻게 관계맺고 있는지와 이를 통해 단독주택지와 아파트 중심의 단지가 서로 다른 도시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 이 연구는 연구규모의 한계로 물리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향후 연구는 작은 단위의 마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독주택지의 도시적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로, 교통, 상업시설, 지형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조사와 관계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통계나 물리적 조사뿐 아니라 주민과 어린이 대상의 설문과 행태 분석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과 결합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 어린이 공공공간은 마을만들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민주도의 도시

계획인 마을만들기의 대부분은 양육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마을만들기도 육아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성공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마을단위의 공공공간은 어린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며 어린이의 접근성, 행동특성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어린이 공공공간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기존의 도시구조에 대한 분석이 2차원적인 것에 반해 대상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울은 경사를 포함하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도상으로 도보 10분거리를 측정할 수 없음에도 블구하고 평면상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향후 연구는 작은 마을단위의 연구를 통해 공간과 공간들 사이의 구체적인 환경과 관계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0,「어디사세요」, 사계절

국토해양부・(사)한국주거학회, 2007,「미래주거환경 비전 및 전략연구」

김기환, 2005, “현대 건축에서 공공영역 구축방식과 도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김은희, 2012, “마을만들기는 운동이다.”,「우리, 마을만들기」, 나무도시

김은희・이영범, 2013,「도시의 마을만들기 동향과 쟁점」, 국토연구원

김찬동, 2012,『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4,「서울마을공동체 사업백서 _ 서울・삶・사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4,「서울마을 이야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4,「커뮤니티 공간 안내서」, 서울특별시

마거릿 콘, 장문석 역, 2013,『래디컬 스페이스』, 삼천리

박현찬, 2012,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지원의 방향”,「건축」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역, 2007,『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2009,『민주적 공공성』, 이음

서수정・임강륜, 2010,「단독주택 재생을 위한 주택 관리 및 정비 지원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임강륜, 2011,「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종우, 2000, “공공공간의 도시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양재섭・김인희, 2012,「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서울연구원

유창복, 2009,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윤주, 2009,「생활권 공공공간에서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성남 외, 2012,「마을하기, 성미산마을의 역사와 생각」, 국토연구원

이상민・차주영・임유경, 2008,「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 호, 2013,『마을공동체 교육교재 0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정 석, 1999,『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진희선, 2012, “주거재생, 공공에서 바라본 마을 만들기”, 「건축」

최기원・심우갑, 2004, “지역문화시설의 건축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하선미, 2007, “도시마케팅전략으로서 공공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하승우, 2014, 『공공성』, 책세상

Ajuntament de Barcelona, 2011, **Equipamientos. La ordenación de los conjuntos dotacionales. Barcelona 12 ejemplos,** Barcelona

http://www.gwangjin.go.kr	광진구청
http://www.gwangjinlib.seoul.kr	광진구립도서관
http://park.seoul.go.kr	서울특별시 공원
http://gis.seoul.go.kr	서울지도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www.seoulmaeul.org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
http://www.sensd.go.kr	성동광진교육지원청
http://www.clip.go.kr/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http://www.libsta.go.kr/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lib.seoul.go.kr/	서울도서관

서울연 2014-CR-10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구축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연구
: 광진구 일대를 중심으로

발행인 김수현
발행일 2014년 9월 3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19

비매품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